

이 자료는 2019년 8월 29일(목) 09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국민중심 · 경제강국” 2020년 예산안

2019. 8.



기획재정부

Ministry of Economy
and Finance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2020년 예산안 모습 | 1 |
| 1. 기본방향 | 1 |
| 2. 재정총량 | 2 |
| 3.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| 4 |
| II. 투자의 중점 | 6 |
| 1. 혁신성장 가속화 | 7 |
| 2. 경제활력 제고 | 17 |
| 3.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| 28 |
| 4. 국민생활 편의 안전·증진 | 37 |
| 5. 튼튼한 국방·외교 | 46 |
| <별첨 1> 주요 재정혁신 사례 | 50 |
| <별첨 2> 분야별 자원배분 | 52 |
| <별첨 3> '20년에 달라지는 모습 | 78 |

I . 2020년 예산안 모습

1

기본방향

□ 경기대응, 경제체질 개선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

- 글로벌 경기 부진,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긴요
-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,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 필요

□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투자

- ①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조속한 자립화,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「D·N·A + BIG 3」*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

* (D.N.A.) Data, Network(5G), AI (BIG 3)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

- ② 수출·투자·내수를 보강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*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 적극 뒷받침

* 생활 SOC 확충,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착수,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

- ③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사회·고용·교육 분야* 안전망 보강과 노인·청년·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자립·혁신 지원

*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,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, 고교무상교육 확대

- ④ 스마트 인프라, 미세먼지 저감, 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등 국민 생활편의·안전·건강 투자 확대

□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

- 회계·기금간 재원의 칸막이식 운영 해소,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
- 다부처 융합예산 편성 확대, 국민참여 예산을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 편성

□ '20년 총수입 규모는 482.0조원 (전년대비 1.2% 증가)

- 국세수입은 재정분권,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△0.9% 감소
-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(5.4%) 등으로 4.8% 증가

□ '20년 총지출 규모는 513.5조원 (전년대비 9.3% 증가)

- 국내외 경제상황, 세입여건·세출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- 혁신성장, 경제활력 제고,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, 국민 생활편의·안전 향상 등을 차질없이 뒷받침

* 총지출 증가율(%): ('18) 7.1 ('19) 9.5 ('20) 9.3

□ 재정적자·국가채무는 전년대비 증가

-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△1.7%p 악화 (△1.9→△3.6%)
-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.7%p 증가 (37.1→39.8%)

< 2020년 재정운용 모습 >

| | '19년 예산 | | '20년 예산안 (B) | (조원, %)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| 본예산(A) | 추경 | | 증감 (B-A) | % |
| ◇ 총수입 | 476.1 | 476.4 | 482.0 | 5.9 | 1.2 |
| (국세수입) | 294.8 | 294.8 | 292.0 | △2.8 | △0.9 |
| ◇ 총지출 | 469.6 | 475.4 | 513.5 | 43.9 | 9.3 |
| ◇ 재정수지 | △37.6 | △42.3 | △72.1 | △34.5 | |
| (GDP 대비 %) | (△1.9) | (△2.2) | (△3.6) | (△1.7%p) | |
| ◇ 국가채무 | 740.8 | 731.5 | 805.5 | 64.7 | |
| (GDP 대비 %) | (37.1) | (37.2) | (39.8) | (+2.7%p) | |

□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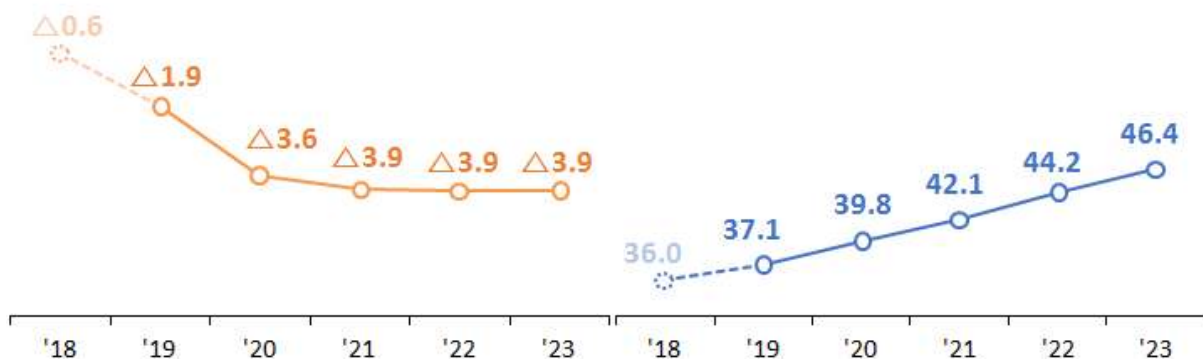
- 단기적인 수지악화를 감내하되, 중기적으로는 「적극재정→경제성장→세수증대」의 선순환 구조 정착
-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혁신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
 - 성과미흡·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, 특별회계·기금재원의 칸막이식 운영 해소 등 지출효율성 제고
 - * 교통·환경·에너지세 배분비율 조정: 교통시설특별회계↓, 환경개선특별회계↑
 - 비과세·감면 정비, 역외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민자사업 활성화, 국유지 종합개발 등 재원 다변화 추진

⇒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'19~'23년 중 연평균 △3%대 중반에서 관리

⇒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'19~'23년 중 40%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

< 관리재정수지(GDP대비, %) >

< 국가채무(GDP대비, %) >



◇ 혁신성장 가속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R&D, 산업·中企·에너지, 환경, SOC 분야 증가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

□ (복지)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, 기초생보 제도개선, 기초연금 인상,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보강(+12.8%)

※ (일자리)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,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, 직업훈련·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 확대(+21.3%)

□ (R&D) 핵심 부품·소재·장비 자립화 및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(+17.3%)

□ (산업) 수출·투자 활력 제고, 제 2 벤처붐 확산 및 영세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가장 높은 증가율(+27.5%)

□ (환경)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충,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·삶의 질 제고 중심으로 투자 확대(+19.3%)

□ (SOC) 노후 SOC 개량,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,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 안전·편의 제고 중심으로 확대(+12.9%)

□ (농림) 농어업 스마트화, 공익형 직불제 도입, 어촌뉴딜 300 본격 투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(+4.7%)

□ (문화) 5G, 한류 기반 문화·관광 콘텐츠 개발·보급 중심 확대(+9.9%)

□ (교육) 고교무상교육, 대학혁신 중심으로 투자 확대(+2.6%)

* 교부금 제외시 증가율 10.3%

□ (외교·통일) 공공외교 ODA,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투자 확대(+9.2%)

□ (국방) 장병 봉급 인상 등 사기진작,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 소요 중심으로 최초로 50조원 돌파(+7.4%)

<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>

(조원)

| 구 분 | '19년(A) | '20안(B) | 증감 (B-A)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| | | | % |
| ◆ 총지출 | 469.6 | 513.5 | 43.9 | (9.3) |
| 1. 보건·복지·노동 | 161.0 | 181.6 | 20.6 | (12.8) |
| ※ 일자리 | 21.2 | 25.8 | 4.5 | (21.3) |
| 2. 교 육 | 70.6 | 72.5 | 1.8 | (2.6) |
| ※ 지방교육재정교부금 | 55.2 | 55.5 | 0.2 | (0.4) |
| 3. 문화·체육·관광 | 7.2 | 8.0 | 0.7 | (9.9) |
| 4. 환 경 | 7.4 | 8.8 | 1.4 | (19.3) |
| 5. R&D | 20.5 | 24.1 | 3.6 | (17.3) |
| 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| 18.8 | 23.9 | 5.2 | (27.5) |
| 7. SOC | 19.8 | 22.3 | 2.6 | (12.9) |
| 8. 농림·수산·식품 | 20.0 | 21.0 | 0.9 | (4.7) |
| 9. 국 방 | 46.7 | 50.2 | 3.5 | (7.4) |
| 10. 외교·통일 | 5.1 | 5.5 | 0.5 | (9.2) |
| 11. 공공질서·안전 | 20.1 | 20.9 | 0.8 | (4.0) |
| 12. 일반·지방행정 | 76.6 | 80.5 | 3.9 | (5.1) |
| ※ 지방교부세 | 52.5 | 52.3 | △0.2 | (△0.3) |

Ⅱ. 투자의 중점

| | |
|----------|--|
| 목표 | <div>국민중심 · 경제강국 구현</div> |
| 투자 방향 | <div>혁신성장 가속화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핵심 소재 · 부품 · 장비 산업의 자립화 ▪ AI 사회 전환 위한 DNA 플랫폼 + 3대 핵심산업 집중지원 ▪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인재 양성 및 대학교육 혁신 지원 ▪ 제2 벤처붐 확산으로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 |
| | <div>경제활력 제고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출 · 투자 · 관광 활성화 ▪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▪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, 생활 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▪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|
| | <div>포용국가 기반 공고화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회 · 고용 · 교육 분야 안전망 촘촘하게 보강 ▪ 저출산 ·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▪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▪ 주거 · 일자리 중심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|
| | <div>국민생활 편의 · 안전 증진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인프라 확충 ▪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인프라 보강 ▪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증진 투자 확대 |
| | <div>튼튼한 국방 · 외교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예군 육성 등 자주국방 역량 강화 ▪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 ▪ 전략적 외교 · 협력을 위한 공공외교 · ODA 확대 |
| 재정 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확장적 재정운영기조 ▪ 세입확충, 지출 효율화 등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|

◇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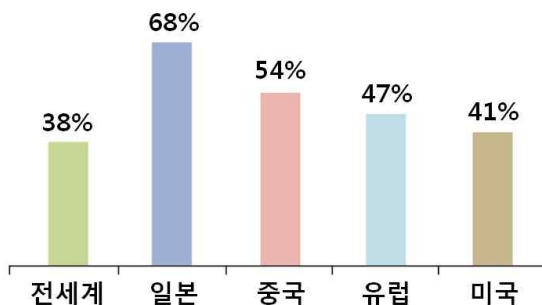
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경쟁력이 취약

* 對日 수입 중 소재부품 비중이 68%로 상대적 높은 수준(美 41%, EU 47%)

- 국내 주력 제조업 생산능력 정체 및 가동률 저하 등 성장모멘텀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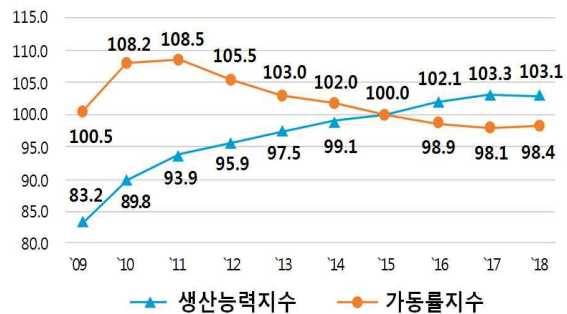
* Deloitte, 미국경쟁력위원회 : 한국 제조업경쟁력지수 '16년 5위 → '20년 6위 전망

<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수입비중 >



* 출처: 무역협회

<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>



* 출처: 통계청

◇ 재정지원 방향

소재·부품·장비 조기 공급안정

-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
- 테스트베드 등 상용화 관련 인프라 확대
- 설비확충, 해외기술 도입 자금 지원

D.N.A + BIG 3 집중지원

- 데이터·인공지능(AI) 기술 융합지원
- 5G 초기수요 창출 + 산업 생태계 조성
- 시스템반도체 성장 생태계 조성
- 미래차 조기상용화 기반 구축
-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및 기술개발

미래인재양성 및 대학교육 혁신지원

- 혁신성장 견인 미래인재 4.8만명 양성
- 대학혁신 지원 및 BK21 사업 확대
- 국립대학과 직업교육 지원 강화

제 2 벤처붐 확산

- 창업·벤처투자자금 확대
- 창업 및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 확대
- 실험실·대학 보유 기술 사업화로 연계

[1] 핵심 소재 · 부품 · 장비 조기 공급안정 (0.8→2.1조원)

- ◇ 핵심 소재 · 부품 · 장비 자립화를 위한 2.1조원 집중 투입
 - 「장 · 단기 기술개발 → 시제품제작 → 성능 · 양산평가 → 설비투자 자금 공급」 등 맞춤형 지원
- ◇ 추가지원 소요 발생시 신속 대응토록 목적예비비 0.5조원 증액, 중장기 · 안정적 재원 확보 · 투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추진

□ 소재 · 부품 · 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 (0.6→1.3조원)

-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 등 6대 분야 핵심 100개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R&D 집중 투자
 -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(66개 품목) 등 3개 사업 예타 면제*, 사업절차 단축 등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
 - *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(총 1.6조원),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(총 855억원), Tech-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(총 2,637억원) 등 3건, 2조원 수준
 - 수요-공급기업이 공동 참여 사업단을 구성하고, 개방형(해외기관 참여) · 경쟁형(단일과제/복수사업단) 등 혁신적 방식으로 R&D 추진
- 대 · 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제 지원* 등 중소기업 소재 · 부품 · 장비 전용 R&D 신설(4개 사업, 총 600개 과제, 1,186억원)
 - * 구매연계형(70개 과제), 공동투자형(20개 과제) 등 수요연계형 R&D 지원
- 전략 품목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체기술 개발 지원(228억원), 대학 · 출연연 보유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(신규 130억원)

□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등 제품 상용화 지원 (0.2→0.5조원)

- 중소기업 R&D 성과물의 신속한 성능평가를 위해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의 시제품 제작, 성능평가 장비 확충

* 공공나노팹(나노종합기술원, 한국나노기술원 등)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(723억원), 소재부품지원센터(15개) 내 특화장비, 가상시험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(990억원)

* 나노팹은 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

-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대·중견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 확대

* 소재·부품을 실제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평가 및 성능 개선(400억원)

□ 설비 확충,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 (신규 0.4조원)

-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, 해외기술 도입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 조성

* 재정에서 모태펀드(600억원), 혁신모험펀드(2천억원)에 출자하여 각각 1천억원, 4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

- 양산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 자금 지원

* (보증) 신보·기보 출연 800억원 (융자) 창업기업자금 200억원, 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년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|
| ○ 기술개발 | 6,384 | 12,571 | |
| · 소재부품기술개발 | 2,360 | 6,027 | · 핵심전략소재 자립화 기술개발(66개) · 약 200개 과제 신규 추진 |
| ·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| - | 764 | · 340개 기술개발 과제 |
| ·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| - | 373 | · 전략소 재 중심 24개 원천 기술개발 |
| ○ 기반구축 | 1,943 | 4,745 | |
| ·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| 641 | 1,834 | · AI 가상 시뮬레이션 SW 구축(200억원) · 소재 테스트장비 구축(15개 센터, 790억원) · 대기업 양산라인 평가(50건 이상, 400억원) |
| · 공공나노팹 장비 고도화 | - | 723 | ·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장비 확충 |
| ○ 자금 지원 | - | 3,900 | |
| · 산업은행 출자(혁신모험펀드) | - | 2,000 | · 소재부품산업 특별지원 용도 펀드 조성 |
| · 신용보증기금 출연 | - | 600 | · 중소기업 투자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|

(2) D.N.A. + BIG 3 집중 지원 (3.2→4.7조원)

◇ 「D.N.A. + BIG 3」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과를 조기창출, 전산업 분야로 확산시키는 도미노 전략 추진

* (D.N.A.) 데이터, 네트워크(5G), 인공지능(AI) (BIG 3)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

-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플랫폼인 D.N.A. 분야에 1.7조원 투자
- 3대 핵심산업(BIG 3)의 발전 생태계 조성에 3.0조원 투자

□ Data, Network, AI 경제 확산 가속화 (1.1→1.7조원)

데이터·AI 경제 데이터 플랫폼 확산, AI 기술과 융합 (0.8→1.1조원)

- (시장 형성) 기 구축한 10개 플랫폼, 100개 센터를 통해 데이터 생산·활용 촉진, 플랫폼간 연계로 데이터의 부가가치 제고 지원

* 데이터 개방(1,458→3,094개), 서비스 개발(17→54종)

- (AI 생태계 확충) AI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·제공, 고성능컴퓨팅 이용 비용 지원, 사업화 바우처 등 확대(310→762억원)

- 민간의 도전적 AI연구를 촉진하는 경진대회 개최(84→132억원), 딥러닝 등 AI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R&D 추진(신규 62억원)

- (데이터·AI 융복합)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는 AI 클러스터 조성, 시각장애인 길안내 등 사회현안 해결 제품·서비스 창출 지원

* 인공지능 융합 집적단지 조성(신규 426억원), 제조데이터 인프라구축(신규 67억원)

* 클라우드 기반 AI 로봇 개발(신규 55억원), 지능정보서비스 확산(181→384억원)

5G

산업간 융·복합 촉진 신경망 확충 (0.3→0.6조원)

- (공공 선도투자) 5G 핵심·선도기술을 재난·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에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확대

* 노후시설물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(신규 100억원), 5G 재난관리 플랫폼 개발(신규 39억원)

- (콘텐츠 개발) 5G 기반 동대문 VR 쇼핑몰 등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개발 지원

* VR·AR 콘텐츠 산업 육성(307→543억원), 문화 콘텐츠 선도 프로젝트(신규 120억원)

- (산업기반 조성) 5G 기반 서비스 창출 기업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, 시험·실증 테스트 베드 조성 등 집중 지원

*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(신규 131억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|
| ○ 데이터·AI | 8,173 | 11,220 | |
| ·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| 741 | 448 | ·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분야, 100개 센터 |
| · 지능정보 산업인프라 조성 | 310 | 762 | · 고성능 컴퓨팅자원 지원(200→800개) |
| ·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 | - | 426 | · AI연구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, 실증 시설 등 인프라 구축 |
| ○ 5G | 2,869 | 5,748 | |
| ·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| 181 | 385 | · 5G 기반 노후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(50개) |
| · VR·AR콘텐츠산업육성 | 307 | 543 | · 공공 및 민간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 지원(15→41종) |
| ·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·운영 | - | 131 | · 판교 및 3개 지역거점에 5G망 활용 서비스의 테스트 시설·장비 구축 |

□ 3대 핵심사업(BIG 3) 발전 생태계 조성 (2.1→3.0조원)

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성장생태계 조성 (0.1→0.3조원)

* 팹리스란 반도체 생산시설(Fab) 없이 설계·개발만 수행하는 설계전문기업을 의미

- (핵심기술 개발) 미래차 등 주력·신산업 분야 핵심요소인 시스템반도체의 수요기업-팹리스간 협력에 기반한 R&D 지원

*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(총 1조원, '20년 891억원)

- 미래유망 핵심 설계자산(IP) 확보를 위한 전용 R&D 신설(90억원)

- (팹리스 성장 기반) 중소 팹리스 기업지원을 위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* 신설(판교),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 성장기반 조성

* 반도체 설계지원센터내에 업무공간 조성, 시제품 제작 지원(신규 60억원)

* 대학에 반도체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(신규 100억원, 개소당 20억원)

바이오 헬스 의료 빅데이터 구축, 신약·의료기기 개발 (1.1→1.3조원)

- (의료 빅데이터 구축)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(100만명 수준) 구축사업 개시(150억원)

*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으로 '20년 1만명 유전체 데이터 수집

-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(5개소, 신규 93억원),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(85→117억원)을 통해 진료·연구 역량 제고

- (신약·의료기기 개발) 바이오의약품·정밀의료기기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

*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(총 1.2조원, '20년 938억원)

- (헬스케어·질병치료 고도화) 치매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진단·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

* 치매극복연구개발(신규 59억원),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(신규 255억원)

미래자동차

성능향상 R&D, 실증 인프라 구축 (0.9→1.5조원)

- (기술개발) 충전속도 2배 달성, 주행거리 확대(600km 이상) 등 전기·수소차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R&D 집중 투자
 - *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(총 3,856억, '20년 390억원)
- (상용화 기반) 자율차 테스트베드(K-city) 고도화(27→144억원), 도심지 도로 실증(신규 30억) 등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반투자 강화
- (성장·인프라 조성) 친환경차 구매보조금, 충전소 구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1조원 이상 투자(0.7→1.1조원)
 - * 전기차(4.3→7.1만대), 수소차(0.4→1.0만대), 수소충전소(40→53개소)

※ 수소차·연료전지를 넘어 “수소경제 플랫폼” 조기 구현을 뒷받침

- 수소 생산·운송·활용 등 수소경제 인프라 전반을 도시 내 주거·교통 등에 시범적용 하는 수소도시(3개) 본격 구축 지원(신규 140억원)
- 수소 관련 국산화 지원,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

*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개발(신규 60억원), 수전해 기술개발 및 실증(54→66억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|
| ○ 시스템 반도체 | 837 | 2,669 | |
| ·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| - | 891 | · 미래자동차 등 유망분야 시스템반도체의 “원천기술→제품화” 기술개발 |
| ·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| - | 60 | · 팹리스 창업기업의 성장 전주기 지원 (입주공간, 설계SW, 시제품 제작 등) |
| ○ 바이오헬스 | 11,065 | 12,865 | |
| ·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| - | 150 | · 1만명분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|
| ·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| - | 938 | · 의료기기 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 지원 |
| ○ 미래자동차 | 9,118 | 14,856 | |
| ·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| - | 390 | · 주행거리, 충전속도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|
| · 전기차 보급 | 5,403 | 7,382 | · 전기자동차 보급 : 4.3→7.1만대 · 급속충전기 확충 : 1,200→1,500기 |
| · 수소차 보급 | 1,496 | 3,593 | · 수소자동차 보급 : 0.4→1.0만대 · 수소충전소 확충 : 40→53개소 |

(3) 혁신선도 미래인재 4.8만명 양성 (0.4→0.6조원)

◇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5년간('19~'23)
총 23만명의 실전형 혁신인재 양성

○ AI대학원 확대(3→8개), AI 지역거점* 설치,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본격 운영 등 AI·SW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

* 지역 중소기업 재직인력 AI융합교육을 위한 '권역별 지능화센터' 신설(5개소),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대(1→5개 권역)

- 3대 핵심산업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)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신설

○ BK 21사업 내 「혁신성장 선도인재 양성형」을 신설(6,400명)하는 등 대학(원) 정규 교육과정 지원사업을 4차산업 맞춤형으로 전환

○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확대 (1,300→2,100명) 등 산업구조 변화에 적시 대응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개편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
| ○ 혁신인재 양성 | 4,057 | 6,449 | • 2.9 → 4.8만명 |
| • AI·SW 특화 교육 프로그램 | 2,483 | 3,230 | • SW중심대학(800억원, 40개 대학) • 이노베이션 아카데미(263억원, 750명) • AI 대학원(130억원, 3 → 8개) • 권역별 지능화센터(+50억원, 5개 신설) |
| • 3대 핵심산업 훈련프로그램 | 307 | 543 | • 글로벌 보건의료 인재양성(122억원, 150명) •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(73억원, 120명) |
| • 4차 산업혁명분야 대학 인재양성 지원 확대 | 40 | 1,009 | • BK21 혁신성장선도인재(772억원, 6,400명) • 사회맞춤형학과 4차 산업혁명 협약반 (144억원, 1,470명) •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(93억원, 100명) |
| •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| 258 | 313 | • 내일배움카드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(265억원, 2,100명) • 폴리텍 하이테크과정(48억원, 960명) |

(4) 대학교육 혁신 투자 확대 (10.6→11.5조원)

◇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교육 개선 투자 확대

- 미래를 선도할 대학혁신 지원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
 - 학부교육을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확대*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(총사업비의 30%)
 - * 대학혁신지원(자율협약형·역량강화형): +1,267억원(+22.3%)
 - 기초학문·미래유망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BK21사업을 확대·개편*(17→19천명)하고 대학원 혁신지원비 신설(年529억원)
 - * 연구장학금(月): (석사) 60 → 70만원, (박사) 100 → 130만원, (박사수료) 100만원
 - 4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선도형 대학 확대(20→40교)
-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 교육·연구기반 강화 지원
 -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을 지속 지원하여 지역거점으로서 공적 역할 강화
 - 노후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및 첨단기자재 보강 등 연구역량 인프라 확충(+682억원)
-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해 직업교육의 획기적 질 제고
 -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 및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 대폭 확대(+1,000억원, 34.4%)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대학교육 혁신 투자 | 106,421 | 114,725 | |
| · 대학혁신지원(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) | 5,688 | 6,955 | · 자율협약형(+1,201억원), 역량강화형(+66억원) |
| · BK21플러스사업 | 2,967 | 3,840 | · 대학원 혁신지원비 신설(529억원) |
| · 산학연협력고도화 | 2,925 | 3,689 | · 4차산업혁명 선도대학(+20개) |
| · 국립대육성지원 | 1,504 | 1,500 | · 거점국립대 9개, 지역중심대 등 30개 |
| ·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| 535 | 1,217 | · 기자재(+314억원), 안전투자(+367억원) |
| · 전문대학혁신지원 | 2,908 | 3,908 | · 자율협약형(+951억원), 역량강화형(+42억원) |

(5) 제 2 벤처붐 확산 (3.7→5.5조원)

◇ 역대 최대규모의 창업·벤처 투자자금 지원, 기술창업·스케일업 중점 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

-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하여 총 2.5조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시장에 공급 (재정 회수자금 0.4조원, 민간자금 1.1조원을 포함)
 - 혁신분야 창업기업 용자공급도 0.5조원 확대(2.1 → 2.6조원)하여 시스템반도체 등 성장유망산업분야에 집중 지원
 -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도록, 혁신모험펀드에 0.4조원을 출자하여 3.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 공급
- 성장단계기업(창업 3~7년) 사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(350→750개社)하고, 이들 중 혁신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한 사업화지원 신설(300개社)
 - *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스케일업 집중 지원을 위해 예비유니콘 40개社를 선정하여 상품개선·판로 등 집중지원 (신규 120억원)
 - 우수창업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1개소 신설, 코리아스타트업센터 2개소* 추가 개소
 - * '19년 3개소(미국, 인도, 이스라엘) → '20년 2개소(스웨덴, 핀란드)
- 민·관협력으로 기술창업기업의 R&D와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TIPS*(250 → 300개), Post-TIPS(20 → 40개) 대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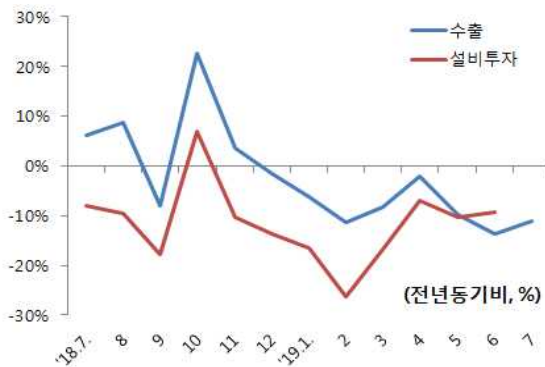
* TIPS(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: R&D·사업화 연계의 기술 창업 지원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|
| ○ 벤처·창업 지원 | 3.7조원 | 5.5조원 | |
| · 모태펀드 출자 | 2,400 | 10,000 | · 혁신창업펀드 4,500억원 등 |
| · 산업은행 출자(혁신모험펀드) | 1,000 | 3,000 | · 성장지원펀드 3,000억원 |
| · 창업사업화지원 | 2,950 | 4,008 | · 창업도약패키지(사업화) +400개社 · 혁신분야창업패키지(신규) 300개社 |
| · TIPS | 1,482 | 1,777 | · TIPS R&D 250 → 300개社 · TIPS 사업화 247 → 321개社 |

◇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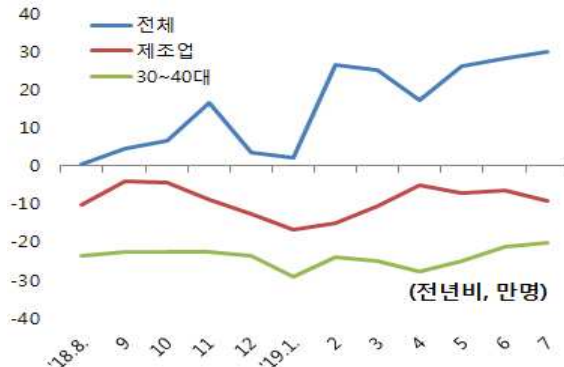
- 미·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·투자 부진 지속
- 고용시장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이나, 30~40대·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여건 불확실성 상존

< 설비투자·수출 추이 >



* 출처: 통계청, 관세청

< 취업자수 증감 추이 >



* 출처: 통계청

◇ 재정지원 방향

수출·투자·내수 활성화

-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 지원
- 정책자금 공급 확대로 투자 촉진
- 국내관광 활성화

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
- 스마트공장 보급 및 스마트산단 조성
- 지방 및 외국인투자 촉진
- 주력 제조업·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
지역경제 활력 제고

- 안전·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집중 투자
- 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
-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활력 제고

일자리 지원

- 사회서비스 일자리 9.6만개 확대
-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뒷받침
- 수요자별 맞춤형 취업 지원

[1] 수출 · 투자 · 관광 활성화

◇ 정책자금,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· 투자 활력 회복 및 국내 관광활성화를 통한 내수 지원

□ 무역금융 보강 · 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

-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, 해외플랜트 수주 등 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금융 4.2조원 확대(수은·무보 출자·출연 350→5,700억원)
 -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수주, 방산 수출 등 대출·보증 1.6조원(4,200억원),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0.2조원(400억원)
 -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보증 0.4조원(400억원) 및 단기수출보험 2조원(700억원)
-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(200개社, 140억원) 등 중소·중견기업 수출바우처를 확대(3,200→3,500개社)하고,
 - 해외전시회·사절단 지원 확대(5,800→6,500개社)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
-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 및 수출기업 애로 지원 비관세장벽 지원실 설치
 -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 대폭 확대(49→163억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
| · 수출입은행 출자 | - | 2,000 | ·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|
| · 무역보험기금출연 | 350 | 3,700 | · 특별보증 1.7조원 및 보험 2조원 공급 * 초고위험국 2,200억원 수출계약 400억원 수입선 다변화 400억원 수출보험 700억원 |
| · 수출바우처 | 1,245 | 1,407 | ·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(200개社) |
| · 해외전시회·사절단 | 356 | 407 | · 전시회 등 지원 5,800→6,500개社 |
| · 통상현안 대응, FTA 활용지원 등 | 215 | 376 | · WTO 당사자분쟁(49→163억원) · 통상정보센터신설(15억원) · 비관세장벽지원실 설치(4억원) |

□ 정책자금 공급 확대로 민간 설비·시설 투자 촉진

- (정책금융기관 출자) 산업 경쟁력 강화, 중소·중견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9,160억원 출자해 정책자금 14.5조원 공급
 - (산은) 산업구조 고도화·환경안전분야 설비투자,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5,330억원을 출자해 8.8조원 공급
 - * 기업투자촉진자금(1,330억원), 기업구조혁신펀드(신규 1,000억원) 등
 - (기은) 설비투자 촉진, 소상공인·혁신 창업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3,330억원을 출자해 5.7조원 공급
 - * 기업투자촉진자금(930억원),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(2,000→2,400억원)
 - (자산관리공사)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의 적정 가치 평가와 회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 출자
- (보증기관 출연) 보증 만기연장 3조원, 부품소재기업 1조원 등 총 5.5조원 규모 보증 공급을 위해 신·기보 출연 확대(1,540→4,400억원)
- (중진기금 용자) 창업·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용자 0.9조원 확대(3.7 → 4.6조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정책금융기관 출자 | 7,000 | 9,160 | • 6 → 14.5조원 공급 |
| • 산업은행 | 5,000 | 5,330 | • 3.9 → 8.8조원 공급 |
| • 기업은행 | 2,000 | 3,330 | • 2.1조원 → 5.7조원 공급 |
| • 자산관리공사 | - | 500 | • 1.5조원 공급 효과 |
| ○ 신용보증기금출연 | 910 | 2,700 | • 만기연장 1.75조원 등 3.4조원 공급 |
| ○ 기술보증기금출연 | 630 | 1,700 | • 만기연장 1.25조원 등 2.1조원 공급 |
| ○ 중진기금 용자 | 36,700 | 45,900 | • 창업기업 +0.5조원, 신성장기반 +0.4조원 |

□ 5G·한류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국내관광 활성화

- VR·AR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상시 향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관광거점·문화시설(50개소) 등에 체험공간 조성
 - * 주요 관광 명소에 체험공간 조성(신규 400억원)
 - 광화문, 사직단 등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에 실물크기로 재현(신규 100억원)
- K-pop 공연장 확충(2개소), 대형 K-pop 콘서트 수시 개최, 한류 수출 지원 등을 통한 국내 관광 붐 조성
 - * 체조경기장 공연시설 개선(신규 171억원), K-컬처 페스티벌(신규 61억원),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(89→108억원)
- 국제관광도시(광역 1개)·지역관광거점도시(기초 4개) 집중 육성,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등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
 - * 관광거점도시 육성(2→159억원), 관광빅데이터 구축(신규 50억원)
- 서원 등 세계유산(K-Heritage) 체계적 홍보·활용, 신남방 국가 중심 한국어 보급 확대, 국학자료 수집·연구 등 한류 확산기반 강화
 - *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(신규 77억원), 세종학당 운영(201→332억원),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국공립문화시설 체험존 | 40 | 300 | · 국립 10개소, 공립 40개소 |
| · K-컬처 페스티벌 | - | 61 | · 상반기 1회, 하반기 1회 국내 개최 |
| ·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| 89 | 108 | · 민관협력 콘텐츠 동반진출 지원 등 |
| · 관광거점도시 육성 | 2 | 159 | · 국제관광도시(광역 1), 관광거점도시(기초 4) |
| ·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| - | 77 | · 서원·역사유적을 활용한 전통공연, 음악회,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|
| · 세종학당 운영 | 201 | 332 | · 세종학당 지정확대(118→148개소),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등 |
| · 국학진흥 및 정책기반 조성 | 44 | 78 | · 국학자료 수집·연구, 전문인력 양성, 자료 DB구축 등 |

[2]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
- '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'20년 0.4조원 지원(4,000 → 5,500개, 누적 1.8만개)하여 제조혁신 촉진
 -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의 수집·분석을 위한 제조데이터 센터(2개소)·분석 플랫폼(1개소) 신규 구축
 -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스마트산단* 조성(2→4개소) 등 산업단지 대혁신 유도(3,401→4,130억원)
 - * 스마트산단 고급인재 육성(128억원),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(56억원), 다기능 스마트부스(6억원),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지원센터(2개소, 70억원) 등
- 외국인투자 및 기업의 지방투자(이전, 신증설 등) 촉진을 위한 투자보조금 확대(2,353→3,182억원)
 - * 공장 부지 매입비용, 시설 투자자금의 일정비용 보조금지원
- e-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(+100억원), 조선업 인력양성(+88억원), LNG병커링선 건조(+30억원) 등 자동차·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
 - 제조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혁신바우처(컨설팅·판로 등 통합지원, 2,000개社) 신설, 뿌리산업 특화단지 환경개선 확대(9→11개 단지)
 - 디자인-제조기술 연계(40→80社), 디자인 인력양성(해외인턴 100명, 5개학과), 사회적기업 디자인(+24억원) 등 디자인 기반 산업 생태계 혁신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|
| •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| 3,428 | 4,430 | • 구축목표 확대 4,000→5,500개社 • 스마트마이스터 확대 100→400명 |
| • 스마트산단 등 산단 지원 | 3,401 | 4,130 | • 창원,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2개소 • 산단환경개선펀드 14→16개소 |
| • 지방외국인투자 촉진 | 2,353 | 3,182 | • 지방투자촉진보조금(1,473→2,227억원) •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(500→550억원) |
| • 제조 중소기업 및 뿌리기업 지원 | 171 | 717 | • 제조 중소기업 2,000개社 오픈바우처 •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확대(9→11개) |
| • 디자인 산업진흥 | 156 | 259 | • 제품개발 디자인 센터 1→3개소 • 온라인제조 플랫폼 40→80건 |

[3]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◇ 생활 SOC 10.4조원 투자 +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착수 + 지역 혁신거점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 추진

□ 생활 SOC '20년 10.4조원 집중 투자

- 여가·건강,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 관련된 기본 시설에 대해 '20년에 10.4조원을 집중 투입(8.0→10.4조원)
- 주요 문화·체육·돌봄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톱(One-Stop)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시설물로 복합화(신규 280개 수준, 0.3조원)

* 예) 복합문화센터 : 도서관 + 주민건강센터 + 생활문화센터 + 국민체육센터

-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시설을 제공(Bottom-up 방식)하고,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 보조율을 10%p 인상 지원

안전·안심

SOC 안전 보장 및 깨끗한 환경 조성 (3.6→4.8조원)

- (교통안전) 위험도로 개선,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노후 시설 개보수 투자를 최대한 확대 (도로·철도 2.3→2.8조원)
- (생활안전) 먹는물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노후 상수도·하수관로 정비 확대(0.4→0.8조원), 화재·침수 등 재난대비 강화
- (깨끗한 환경) 미세먼지 차단숲(60→90ha), 도시 바람길 숲(11→17개) 조성 확대, 국민여가 활동을 위한 휴양림 투자 확대(0.5→0.7조원)

문화·체육

주민 밀착형 여가·문화시설 대폭 확충 (0.9→1.1조원)

- 공공도서관(+182개소), 국민체육센터(+173개소) 등 확충으로 국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시설의 지역격차 완화

취약지역 기반강화

구도심 재생·농어촌 정주기반 개선 (2.6→3.5조원)

- (도시재생) 민간 상업·주거 복합시설, 소규모 주택정비 등을 위한 용·출자,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(221→329개소) 등
- (주차난 해소)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혼잡, 주민갈등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주거지 주차장 대폭 확대(+280개소)
- (어촌뉴딜300) 어촌·어항의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,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화 개발(70→170개소)

돌봄 인프라

공공보육·의료 및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확충 (0.8→0.9조원)

- 국공립 어린이집(+550개소) 등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,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투자(시설별 70→150인) 등 양질의 요양시설 확충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생활 SOC | 79,949 | 103,766 | +2.4조원, 29.8% |
| • 도로 및 철도 안전 | 22,579 | 28,141 | • 도로(1.6→1.7조원), 철도(0.7→1.1조원) |
| • 노후 생활SOC 개보수 | 8,407 | 12,782 | • 노후상수도(0.2→0.5조원) 노후하수관로(0.2→0.3조원) |
| • 깨끗한 생활환경 | 5,076 | 7,467 | • 미세먼지저감숲(355→1,030억원) |
| • 취약지역 기반강화 | 26,134 | 34,758 | • 어촌뉴딜(0.2→0.4조원), 도시재생(1.2→1.7조원), 주거지 주차장(0.1→0.3조원) |
| • 문화·체육시설 | 9,171 | 11,325 | • 국민체육센터(1,947→2,578억원), 공공도서관, 문화센터(1,240→2,695억원) |
| • 돌봄 인프라 | 8,582 | 9,293 | • 국공립 어린이집(688→748억원),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(1,065→1,334억원) |

□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 (0.5조원)

- SOC 확충 사업은 공정에 맞춰 설계비·착공소요 최대 반영
 - 사전 공정(기본·실시설계) 필요 사업은 설계비 반영
 - 설계·공사 동시 추진 필요 사업은 턴키 발주 소요 반영
 - 내년도 즉시 착수 가능 사업은 착공·착수 소요 동시 반영
- 지역특화산업은 R&D, 생산·실증 인프라 구축 등 시범사업 소요를 최대 반영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|
| ○ 균형발전 프로젝트 | 182 | 4,740 | |
| · SOC | 182 | 2,518 | |
| - 기본 설계비 반영 | 182 | 1,805 | · 남부내륙선 30→150억원 |
| - 턴키 발주 | - | 400 | · 압해-화원, 화태-백야 각 200억원 |
| - 착공·착수비 반영 | - | 313 | · 동해선 전철화(신규) 200억원 |
| · R&D 및 생산 인프라 | - | 2,222 | |
| - R&D | - | 1,760 | ·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(신규) 567억원 · 광주 AI 집적단지(신규) 66억원 |
| - 생산 인프라 등 | - | 462 | · 전남 수산식품 단지(신규) 24억원 |

□ 지역 혁신거점 구축

- 전국 7개 지역*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('19.7월)하고, 규제특례와 연계하여 R&D, 사업화, 인프라 등 종합지원(615억원)

* ①부산(블록체인), ②대구(IoT웰니스), ③세종(자율주행실증), ④강원(디지털 헬스케어), ⑤충북(스마트안전제어), ⑥전남(e-모빌리티), ⑦경북(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)

- 지자체 - 대학 주도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전략 수립·추진을 위한 '지역혁신 플랫폼' 구축(시범 3개소, 1,080억원)

* (지원대상) 초광역형 1개 + 광역형 2개, (지원조건) 지자체 30% 대응투자

□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활력 제고

- 직불금의 쌀 농가·대농 편중 해결,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직불제 개편 추진(1.4→2.2조원)
- 원예, 양식, 축산 등 스마트농어업 혁신거점 조성(2,544→3,460억원)
 - * 스마트팜 혁신밸리(4개소), 스마트양식 클러스터(1→3개소),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(3→8개소),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(신규 2개소) 등
-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창업·보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창업플랫폼, 가정간편식(HMR) 지원센터 신설(214→387억원)
- 청년농의 「준비-정착-성장」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(0.6→0.8조원)
 -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(5→8백명)
 - * 재학중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, 졸업후 영농 및 농촌소재 농식품 분야 취·창업 의무를 부과
 -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4,800명('20년 신규 1,600명)으로 확대하고, 농지임대, 자금,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
 - *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대상 최대 3년간 80~100만원 지원
- 농업 생산기반 정비(수리시설 개보수 등)에 1.9조원을 투자하고,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(지역전략산업 발굴·고도화)을 60개소로 확대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공익형 직불제 | 1.4조원 | 2.2조원 | • 쌀고정, 밭농업 등 농업직불사업 |
| • 스마트 농어업 | 2,544 | 3,460 | • 스마트팜 혁신밸리(686→817억원) 등 |
| • 맞춤형농지지원 | 4,649 | 6,460 | • 임대용 농지매입 1,720→2,500ha |
| •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| 214 | 314 | • 3,200→4,800명('20선발 1,600명) |
| •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| 214 | 387 | • 청년창업허브, HMR지원센터 신설 |
| • 농업생산기반정비 | 18,176 | 19,186 | • 배수개선(2,568→3,067억원) 등 |
| • 어촌뉴딜 300 | 1,729 | 3,981 | • 70→170개소 (신규 100개소) |
| • 농촌신활력플러스 | 245 | 735 | • 30→60개소 |

[4] 일자리 지원

□ 일자리 예산은 '19년 대비 21.3% 늘어난 25.8조원

- 일자리 예산은 '20년 25.8조원으로 '19년대비 +4.5조원
- 청년일자리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뒷받침, 고용보험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0.7조원 신규 국고지원(0.1→0.8조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직접일자리 | 20,779 | 29,241 | • 노인일자리 확대 61→74만명(+13만명) |
| • 직업훈련 | 19,610 | 22,917 | • 평생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(0.8→0.9조원) |
| • 고용서비스 | 9,867 | 12,133 |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(0.3조원) |
| • 고용장려금 | 57,883 | 66,166 | • 청년추가고용장려금(20→29만명) |
| • 창업지원 | 25,097 | 23,631 | 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(2.4만명) |
| • 실업소득 유지·지원 | 79,139 | 103,609 | • 구직급여(7.2→9.5조) |
| 합 계 | 212,374 | 257,697 | 21.3% 증가 |

□ 돌봄·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.6만개 확대 (+1.3조원)

-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 도입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라 돌봄 분야 일자리 확대(17.5→21.9만개, +4.4만)
 - * 어린이집 보조교사(4→5.2만개)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(1.2→3.0만개) 등
- 청년·신중년·노인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확대(4.3→6.4만개, +2.1만)
 - *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(2.0→3.7만개),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(0.2→0.5만개)
-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확대(9.9→11.5만개, +1.6만)
 - * 장애인활동보조인(7.0→7.8만개), 장애인일자리지원(0.9→1.0만개)
- 환경·문화 등 신수요 분야 일자리 발굴(6.4→7.8만개, +1.5만)
 - * 미세먼지배출감시단(+1,000개), 바다환경지킴이(200→1,000개) 등

□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

- 대기업 인프라 등을 활용한 '중소기업 채용 예정자' 대상 훈련(1.8천명) 및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신설(3,000명)
- 고용 위기 현실화 前 직업훈련, 고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「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」 신설(5개소, 650억원)

□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

- (청년) 청년추가고용장려금(신규 9만명), 청년내일채움공제(신규 14만명) 등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
- (중장년) 신중년들이 축적한 연륜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(2.5→5천명) 및 사회공헌활동(1→1.5만명) 지원 확대
- (장애인)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확대(+6개소), 중증·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(+5~20만원), 장년장애인 인턴제 신설(200명) 등

(억원)

| 구 분 |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|
| 청년 | · 청년추가고용장려금 | 6,735 | 9,909 | · 20 → 29만명 |
| | · 청년내일채움공제 | 9,971 | 12,820 | · 25 → 35만명 |
| 중장년 | ·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| 218 | 513 | · 경력형일자리 2.5→5천명 · 사회공헌활동 1→1.5만명 |
| 장애인 | · 장애인직업능력개발 | 616 | 863 | ·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6개소 확대 |
| | · 장애인고용장려금 | 2,106 | 2,297 | · 중증(여성 +20만원, 남성 +10만원) 경증(여성 +5만원) |
| | · 장년장애인인턴제 | - | 11 | · 50세 이상 장애인 +200명 |

◇ 현황

○ 1분위(하위 20%)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개선 미흡

* 1분위 소득: ('18.1/4)△8.0 → ('18.4/4)△17.7 → ('19.2/4)0.0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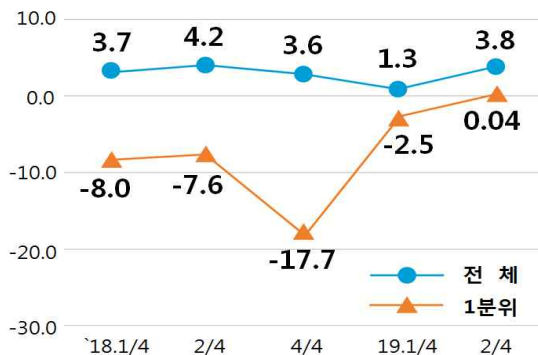
- 특히,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·저소득 노인층이 1분위 대폭 유입

* 1분위 중 65세이상 노인비중: ('10)46.3 → ('18)64.0%

○ 영세·자영업자 체감경기 및 사업소득 등이 부진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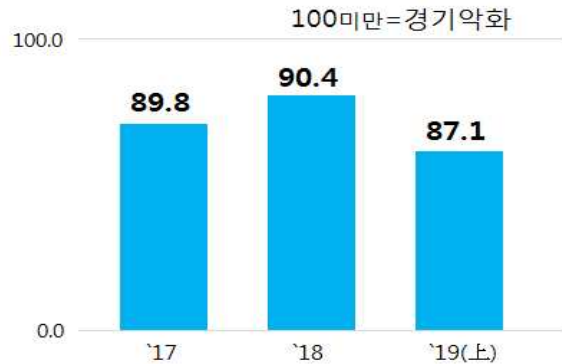
* '18년 종사영역별 소득 증가율(전년비): 상용근로자 5.5% 임시일용 4.9% 자영업자 2.1%

< 소득증가율(전년동기대비 %) >



* 출처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

< 소상공인 체감경기(BSI) >



* 출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◇ 재정지원 방향

사회안전망 강화

- 기초생보 사각지대 축소·보장성 강화
-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
- 장애인, 소외 아동·청소년 자립 지원

고용·교육 안전망 강화

-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
-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
- 고교 무상교육 본격 추진
-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

저출산·고령화 대응

- 출산·양육·돌봄환경 개선
- 신혼부부 주거·소득지원 확대
- 노인 소득기반 및 고령자 인프라 구축

영세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

- 소상공인 특례보증·전용 융자 확대
-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지원
- 골목상권을 위한 구도심 개조 및 상품권 발행 확대

(1) 저소득·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

◇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 및 생계비 경감을 지원하고,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

-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

□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

- 기초생보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강화 (7.9만가구 신규혜택, +0.6조원)

|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 | 근로소득공제 30% 신설 |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| 부양비 10%로 하향 조정 | 수급자 재산요건 완화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+1.6만가구 | +2.7만가구 | +2.5만가구 | +0.6만가구 | +0.5만가구 |

-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(+1.6만가구)
-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~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% 신규도입 (+2.7만가구)
-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일반·금융·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0%(월 4.17→2.08%) 조기인하 ('22.10→'19.9월, +2.5만가구)
-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현실화로 수급요건 완화 (+0.5만가구)
 - * (주거용재산한도) 대도시 1→1.2억원 중소도시 6.8→9천만원 농어촌 3.8→5.2천만원
 - * (기본재산공제) 대도시 5.4→6.9천만원 중소도시 3.4→4.2천만원 농어촌 2.9→3.5천만원
- 아들(30%)과 출가한 딸(15%)의 부양비율을 10%로 하향 (+0.6만가구)
- 수급자 출산급여(60→70만원) 및 장제급여(75→80만원) 단가 인상
-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(25 → 30만원) 대상을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(13.7→15.3만명)
- 저소득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취·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자금융자 수혜자를 확대(1,170→2,370명)하여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

□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

- (교육)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% 인상(20.9→33.9만원)
- (주거)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→45%로 확대하고, 기준임대료(최고 14.3%) 및 자가수선급여(21%) 인상
- (에너지) 바우처 단가 인상(난방 10.2→10.7만원, 냉방 6,700→9,000원)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
- (여가)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상향(8→9만원, 161만명),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(월 8만원, 7→8개월 지원) 지원 확대
- (의료) 노인, 노숙인 등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(11.8→27.6만명)하고, 저소득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신규지원(4.1만명)
 - '20년부터 MRI(척추질환), 초음파(흉부·심장)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· 에너지바우처 | 937 | 1,067 | · 단가인상 (난방) 10.2→10.7만원 (냉방) 6,700→9,000원 |
| · 통합문화이용권 | 915 | 1,033 | · 161만명, 연간 8→9만원 |
| · 스포츠강좌이용권 | 247 | 277 | · 지원기간 7→8개월 |
| · 국가결핵예방 | 447 | 464 | · 노인 노숙인 대상 무료 결핵검진 실시 |
| · 의료급여 | 63,915 | 70,038 | ·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소요 등 |

□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

- '19.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
 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(+9천명)·시간(월평균 +17시간)을 확대하고, 제도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급여 탈락자에 별도 지원
-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(+1,500명) 및 청소년 방과후 돌봄 대상(+3,000명) 대폭 확대
- 빈곤·요보호아동, 위기·다문화·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선도지역 집중 지원
 - * 청소년안전망팀 구축(9개소), 고위기청소년 심리상담 등 맞춤 프로그램(17개소)
 - * 다문화,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 청소년 센터(2개소), 요보호아동 사례관리(281명)
-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(월 30만원) 지급 확대(+0.3만명)

□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- 사회서비스원 확대(4→11개소)를 통해 다기화된 지역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공공성·질 제고 추진(60→121억원)
- 복지서비스 연계, 보건·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목표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(20개 시군구, 통합사례관리사 100명) 시행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|
| · 장애인 활동지원 | 10,035 | 12,752 | · 서비스시간(월): 110 → 127시간 · 동일 서비스 수준 유지 보전조치 |
| · 발달장애인지원 | 427 | 855 | ·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(2,500→4,000명) ·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(4,000→7,000명) |
| ·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| 99 | 218 | · 지급인원 0.5 → 0.8만명 · 보호종료 2년 내 아동 |
| · 복지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 | - | 52 | · 20개 시군구 시범사업 |

〈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〉

① 주거 안정 : 공공임대주택 및 금융지원 대폭 확대

- 역세권 중심으로 신혼부부·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2.9만호 공급(1.7 → 3.3조원/+0.9만호)

* 역세권 세어하우스 및 매입임대(+0.4만호), 행복주택(+0.5만호, 평형확대 15.6→17.5평)

- 상환능력 있는 신혼부부·청년은 저리(低利) 금융지원 확대

*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(+0.85조원), 중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(+0.95조원)

② 일자리 : 취창업 지원 +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

- ① (일자리 창출)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(신규 9만명), 대학의 기술 기반 창업 촉진*

*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10개 확대(5→15개), 우수창업팀(50개)

- ② (취업역량 강화) 대기업 인프라(공동훈련센터)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직업훈련 지원 신설(5천명)

- ③ (고졸인재)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(1인당 月60만원, 2.7만명), 도제학교 수료생 고숙련 기술훈련(P-tech) 확대(30→40개소)

-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확대(인원: 2.6→3.2만명, 단가: 3→4백만원), 전문대 후진학 전담과정 확대(15→25교) 등 선취업·후학습 지원

③ 자산형성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

-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 확대(10→14만명), 청년저축계좌* (최대 3년간 1,440만원) 신설 및 청년 햇살론 재개(1,000억원 공급)

* 차상위 청년 근로자 대상, 월 10만원 저축시 30만원 매칭 지원

- 계층이동사다리 보강을 위해 소외계층 장학사업 지원 확대

*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(1,500→2,350명), 희망사다리 장학금(12,600→17,400명), 파란사다리 해외연수 장학금(1,200→1,600명)

[2] 고용안전망 강화

- '20년 하반기부터 '국민취업지원제도'를 도입하여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획기적 개선
 -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(20만명)에게 최대 6개월간 月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(0.3조원)
 - * (요건심사형, 의무지출) 취업경험 있는 중위소득 50%이하 구직자
(선발형) 취업경험 없는 중위소득 50%이하 구직자, 중위소득 50~120% 청년
-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%로 상향(종전: 50%)하고,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보장성 강화(+2.3조원)
 - ※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(1.3 → 1.6%)조치 병행('19.10월 시행)

[3] 교육안전망 강화

- 고등학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('19.2학기 고3 → 고2·3)을 위해 국고 0.7조원 신규 지원(총 88만명, 학생당 연 158만원)
-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('20~'22년)으로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
 -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% 지원하고,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인상(月33→36만원, +155억원)
-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을 발굴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'복권기금 꿈사다리' 장학사업 본격 시행토록 1,263억원 출연
 - * ('19년) 1,500명(시범, 6개월) → ('20안) 2,350명(신규 1,000명)
 -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근로장학금을 확대(+3천명, 2,874→3,282억원)하고, 전문대 장학금 신설(1천명) 등 우수장학금 확대(197→368억원)

[4] 저출산 · 고령화 대응

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

- (보육) 내년도 어린이집 연장반(16시~) 도입·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(3.6→3.7조)
 - 연장보육료 신설(639억원) 및 연장반 전담교사 2.2만명을 별도 지원(859억원)하고 기본보육료를 인상(3.0%)
 - 국공립 어린이집(550개소) 및 직장 어린이집(94개소)을 확충하고, 시간단위로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(483→690개소)
- (결혼·출산)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·국민임대(0.2→1.0만호) 및 신혼희망타운(1.5→1.9만호) 확대
 - 육아친화적 일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출산·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(60→80만원)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인상*

* ('19년) 180 / 175만원 → ('20안) 200 / 180만원

- (돌봄) 초등돌봄교실(700개소) 및 다함께 돌봄(550개소)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양과 질 제고

* 아이돌봄서비스: 돌보미 +4천명, 관리인력 +97명, 학대 사례관리사 +222명(신규)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|
| · 국공립어린이집 | 688 | 748 | ·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|
| · 영유아보육료 등 | 35,981 | 36,843 | · 연장반 보육료 지급 · 연장반 교사 인건비 및 수당 지원 |
| · 신혼부부 영구·국민임대 | 2,820 | 6,838 | · 0.8만호 확대 지원(0.2→1.0만호) |
| · 온종일돌봄 | 316 | 547 | ·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확충 · 다함께 돌봄 센터 550개소 확충 |
| · 아이돌봄서비스 | 2,246 | 2,440 | · 아동학대 사례관리사 222명(신규) |

□ 노인소득기반 확충 및 고령화 대응 인프라 구축

- (소득기반) 기초연금 급여를 25→30만원으로 인상(하위 40%)
 - 노인일자리 13만개를 확대하고, 기간연장(12개월형 18→50%)으로 노인소득 공백 완화
 - * 국정과제(~'22년, 80만개) : ('17)47 ('18)51 ('19)61 ('20) 74만개
 -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(월 30만원, 296억원)을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(분기별 27→30만원) 인상
- (돌봄)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(6개)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혜자를 확대(35→45만명)하고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(0.2→0.4조원)
 - * 예시: 안부확인, 병원동행, 가사지원, 자조모임 지원 등
 -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노인이 사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(8 → 16개소)
- (주거)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고령자 임대주택(0.9→1만호) 및 맞춤형 복지주택(신규 10개소) 확대
- (연구개발) 돌봄로봇 및 보조기구 개발, 치매극복 연구, ICT 기술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 고령친화 R&D 확대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|
| • 기초연금 | 114,952 | 131,765 | • 급여 인상(하위 20→40%, 25→30만원) |
| 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| 8,220 | 11,991 | • 노인일자리 확대(61→74만명) |
| • 노인맞춤돌봄 | 2,458 | 3,728 | • 서비스 수혜 노인 확대(35→45만명) |
| • 지역사회통합돌봄 | 64 | 178 | • 개소수 확대(8→16개소) |
| • 고령자 공적임대 | 7,540 | 7,974 | • 0.1만호 확대 지원(0.9→1.0만호) |
| • 고령친화산업 R&D | 257 | 401 | • 돌봄로봇 개발 및 중개연구(72억원) • 치매 진단·치료 연구(190억원) 등 |

[5]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육성 : 2.6→3.1조원

◇ 포용적 자금 공급 확대,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중점 지원

- 지역신보 특례보증 5조원 확대(20.5→25.5조), 소상공인 융자 0.3조원 확대(2.0→2.3조) 등 소상공인 포용적 자금공급 확대(2.0→2.4조원)
- 이익공유형 프로젝트*(50개社), 비즈니스모델 개발(10개),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(1,000개 점포) 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(신규 146억원)
- * 성공 CEO가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이 성공시, 이익일부를 CEO와 공유
- 1인 방송 플랫폼·스튜디오 구축(신규 2개), 인터넷 쇼핑몰(+1,700개社)·TV홈쇼핑(+100개社) 입점 등 온라인 판로지원(75→313억원)
- 구도심의 쇠퇴상권을 개조하는 상권르네상스(+6개소, 개소당 최대 120억원), 지역·온누리 상품권 1조원 확대* 등 골목상권 활성화(0.3→0.4조원)

* 지역사랑상품권(2.3→3.0조원), 온누리상품권(2.0→2.5조원) 발행 확대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· 지역신보 재보증 | 319 | 1,011 | · 보증규모 +5조(20.5→25.5조) 확대 |
| · 소상공인 융자 | 19,500 | 22,500 | · 일반경영안정자금 5,225→7,525억원 · 혁신형소상공인 융자(신규) 700억원 |
| · 소상공인 성장지원 | 681 | 982 | ·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(신규) 146억원, · 온라인 판로확대 75→313억원 등 |
| · 골목상권시장 활성화 | 3,244 | 4,024 | · 상권르네상스 118억원 (7→13개소) · 온누리상품권 1,771→2,312억원 · 지역사랑상품권 534→743억원 |

◇ 현황

- '70~'80년대 집중 건설된 SOC 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안전사고 등 사회비용 증가, 국민불안 우려

*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('18.12), 인천시 적수 현상('19.6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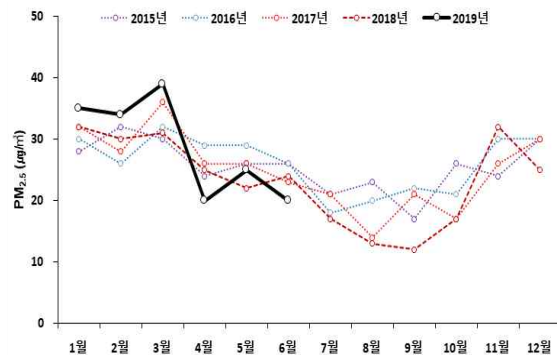
-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, 정신질환·마약 등 새로운 위험요인 대두

< SOC 노후화 전망 >



* 출처: 국토부

<미세먼지>



* 출처: 환경부 에어코리아

◇ 재정지원 방향

스마트 인프라 확충

- 적수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
- 도로 · 철도 첨단 교통체계 구축
-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

안전투자 인프라 확충

-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투자
- 기후리스크, 대형 · 복합재난 예방투자 확대
-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

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

- (산업)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
- (수송) 조기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
- (생활)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
- (건강보호)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설비 설치

국민건강 증진 투자 확대

-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
- 5대 건강 위험요인 예방관리체계 확립 (정신질환, 자살, 마약, 감염병, 결핵)
- 공공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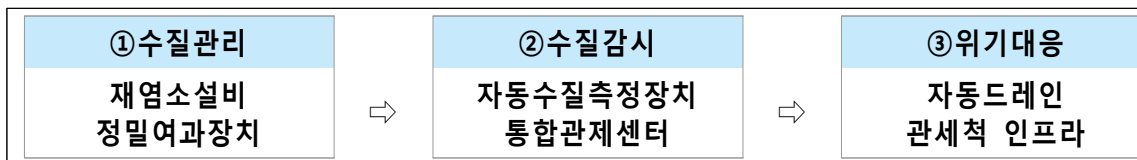
[1] 국민생활 편의증진 스마트 인프라 확충 (0.3→1.2조원)

◇ 교통·상수도 등 국민 생활밀접 기반시설에 AI·5G 등 신기술을 접목해 운영 효율 제고, 국민편의 증진

□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으로 적수문제 근본적 해결 (신규 0.4조원)

-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기반 수질·수량 관리시스템* 구축 (총 1.4조원, 국비 0.9조원)

*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, 수질 이상시 경보 발령 및 오염수 배출을 통해 신속 대응



- 인천 등 수도사고 취약지역, ICT 적용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특광역시·거점도시 대상 우선 추진('20년 19개, 0.4조원)

□ 도로·철도 등 첨단 교통체계 구축 (0.1→0.4조원)

- 도로 ITS*(320→1,194km), 감응신호시스템(97→330개 교차로), 터널 원격 제어(24개 권역) 등 막힘없는 도로환경 조성(576→2,236억원)

* ITS (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) : 기존 도로에 IoT 센서, 지능형 CCTV 등을 설치,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교통혼잡 개선 및 사고대응 강화

- 스마트 역사*(100억원), 고속철도 IoT 센서 설치 등(신규 394억원) 편리한 철도길 구축(163→1,224억원)

* 역사 이용객에게 적합한 상황별 정보 제공(사고, 고장 여부/혼잡도/열차운행정보 등)

□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 등 미래 도시환경 구현 (0.1→0.3조원)

- 개별 운영 중인 방법·교통 등 5대 서비스를 통합·연계하는 통합플랫폼 보급사업 조기 완료('23→'21년, 93→186억원)

* ①112 긴급영상지원 ②112 긴급출동지원 ③119 긴급출동지원 ④재난안전상황
⑤사회적 약자(치매·어린이 지원)

- 스마트시티 시범사업(세종·부산) 본격화(265→712억원)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운영을 기능화하는 챌린지 사업 확대(93→269억원)

* 지자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을 채택·지원(13→23개 지자체)

- IoT 센서·로봇 활용 지하공동구 관리(46억원, 신규) 및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*(19억원, 신규) 등 도시 기반 시설 효율화

* 주차장 위치, 실시간 주차현황(주차 가능공간 등)을 파악, 정보제공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스마트 상수도 | - | 3,877 | |
| ·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| - | 3,811 | · 특·광역시, 지역 거점도시 19개 지역 |
| ·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(추경 100) | | 66 | · 노후 상수관로 5,800km 정밀조사 |
| ○ 첨단 교통체계 | 816 | 3,639 | |
| · 국도 ITS | 408 | 1,086 | · 구축구간 대폭 확대(153→531km) |
| · 감응신호 시스템 | 68 | 168 | · 국도(97개)+지자체 구간(233개) |
| · 철도 원격·자동검측 | - | 355 | · 고속철도 대상 센서 등 설치 |
| · 스마트 역사 | - | 100 | · 이용객이 많은 역사 대상 시범사업 |
| ○ 스마트 시티 | 1,256 | 3,245 | |
| · 스마트시티 플랫폼 | 113 | 207 | · 통합플랫폼 지원(93→186억원) |
| · 국가시범도시 | 265 | 712 | · 스마트빌리지(신규 60억원) 등 |
| · 스마트 시티 챌린지 | 93 | 269 | · 민간 제안(6개), 지자체 제안(17개) |
| · IoT 기반 지하공동구 | - | 46 | · 국토부, 산업부 등 다부처 협력사업 |

〈 스마트 인프라 〉

스마트 인프라 투자 : '19) 0.3 → '20) 1.2조원

국민편의 증진
(Life - Up)

편 리

+

안 전

+

신 속



신기술 접목
(Smart - Up)

5G

+

AI

+

빅데이터

교통

도로

: '19) 576 → '20) 2236억원

- 국도 ITS 구축
- 스마트 교통정보 시스템
- 감응신호 시스템

철도

: '19) 163 → '20) 1224억원

- 역사 디지털 트윈 등
- 무선통신망(LTE-R)
- IoT 센서를 통한 원격감시, 자동검측

항공 · 항만

: '19) 77 → '20) 179억원

- 스마트 하늘길 시스템
- 드론실증도시 구축
- IoT 기반 지능형 항만 물류

주거 · 환경

도시

: '19) 1,256 → '20) 3,245억원

- 스마트 시티 본격 추진 (시범도시, 스마트시티 챌린지, 통합플랫폼 구축 등)
-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 안전관리(지하공동구 안전관리)

수자원

: '19) 127 → '20) 4,574억원

- 스마트 지방 상수도
-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
- 무인 자율제어배수 펌프장
- 도시 재이용수 활용 시스템

스마트정부

신기술기반 행정

: '19) 307 → '20) 515억원

-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
-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
- 일자리 정보 플랫폼,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

안전 강화

: '19) 102 → '20) 216억원

-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
- 노인안심서비스 운영
- 응급구조 앰블런스 드론
- 빅데이터 활용 산재예방

(2) 재난·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

◇ 노후 기반시설 개량 + 재난·안전 인프라 고도화 +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중점 투자

□ 지자체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국고지원

○ 노후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

* 도시철도 노후설비 개량(414→566억원), 출자역사 개량(9개소, 282억원)

○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을 郡에서 市 지역으로 전면 확대 (2,359→4,680억원)

□ 기후 리스크, 대형·복합재난 대비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

○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(4,512→5,038억원),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료 지원 2배 인상(25→50%)

○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용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최초 도입, 소방헬기 보강(2대)으로 전국 4대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

○ 제주·서귀포 연안 VTS 신규 구축 및 해경 대형헬기 보강(1대), 파출소 잠수요원 양성·배치(764명) 등 해상 수색·구조역량 강화

* VTS(Vessel Traffic Service): 해상 선박 교통관제 시스템

□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

○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, 회전교차로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 대폭 확충(569→703억원)

○ 산재 사망사고의 약 30%를 차지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'일체형 작업발판' 설치 확대(769→1,002억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|
| · 지자체 노후시설 개량 | 2,773 | 5,528 | · 도시철도 개량(566), 노후역사 개량(282), 지방 상수도(4,680) |
| ·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| 4,512 | 5,038 | · 침수, 붕괴 등 위험 지역 정비(4,342), 우수저류시설 설치(695) |
| ·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| 21,779 | 25,230 | · 교통안전(20,698), 산재방지(4,235), 자살예방(297) |

(3)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(2.3→4.0조원)

◇ 미세먼지 저감목표*를 1년 앞당겨 달성('22→'21년) 할 수 있도록
산업·수송·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투자 대폭 확대(2.3→4.0조원)

* '22년까지 '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.4만톤의 35.8%(11.6만톤) 저감

□ 핵심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가속화

○ (산업)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·감시 강화

- 방지시설, 굴뚝 원격자동측정기(TMS) 설치 지원 확대, 대기
규제 강화로 인한 中企 부담 완화(자부담 50% 경감, 3년 한시)

*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: 182(추경 1,815) → 4,000개소, 자부담 20 → 10%
굴뚝 원격자동측정기(TMS) : 추경 194 → 144개소, 자부담 40 → 20%

- 드론, 원격감시장비 등 불법배출 감시체계 고도화

* 드론+이동차량: 3 (추경 14) → 17세트, 원격감시장비: 추경 1 → 3세트

○ (수송)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·건설기계에 대한
저공해조치 지원 3배 이상 확대(1,636→5,599억원)

* 조기폐차 : 15→30만대, DPF 부착 : 1.5→8만대
건설기계 엔진교체 : 1,500→10,000대, 건설기계 DPF : 1,895→5,000대

- 소상공인·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LPG차
신차구입 지원 물량 10배 이상 확대(950→10,000대)

○ (생활)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10배 이상 확대(3→35만대) 및
저소득층 가구 지원금액 상향(5만대, 20→50만원)

□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 확대

○ 저소득층(246만명) 마스크 지급(1인당 年 50매) 및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2배 이상 확대(2,272→6,000대)

○ 전국 지하역사(566개)에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(200→530억원)

* 자동측정망 13개 역사 → '20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완료
(지하역사) 환기설비 92개 역사(335대), 공기정화설비 237개 역사(3,968대)
(터널) 집진시스템 61개 역사(187대) (차량) 공기정화설비 1,577량(5,032대)

- IoT·AI 기반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시범도입(서울 20개 역사)

○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* 고도화(6→40억원)

* 한·미·EU 대기질 공동연구(2차, '20~'25년) : (1차) 기상·항공 → (2차) 위성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|
| | 본예산 | 추경 | | |
| ○ 미세먼지 대응 | 2.3조원 | +1.3조원 | 4.0조원 | · '19년 대비 1.7조원 증가(+74.6%) |
| ① 저감조치 | 19,780 | +12,041 | 36,686 | |
| · 조기폐차 | 1,206 | +2,412 | 2,896 | · 15 → 30만대 · 국비보조율 50→60%(3년 한시) |
| · DPF 부착 | 222 | +1,185 | 1,383 | · 1.5 → 8만대 · 지원금액 300 → 350만원 |
| ·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| 80 | +1,018 | 2,200 | · 182 → 4,000개소 · 자부담 20 → 10%로 완화(3년 한시) |
| ·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| 24 | +336 | 510 | · 3 → 35만대(저소득층 5만대) · 저소득층 지원금액 : 20 → 50만원 |
| · LPG 화물차 신차 구입 | 19 | +81 | 200 | · 950 → 10,000대 |
| ② 국민건강 보호 | 2,035 | +1,138 | 1,836 | |
| ·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| 200 | +650 | 530 | · 지자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 |
| ·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| - | +194 | 574 | · 저소득층 246만명, 1인당 年 50매 |
| ③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 | 1,110 | +296 | 1,501 | |

[4] 국민건강 증진 및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투자 확대

□ 국민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공공의료 투자 확대

- (건강보험)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*를 뒷받침하도록 국고지원 1.1조원 확대(7.9→9.0조원)

* MRI 및 초음파 보험적용 단계적 확대, 상급병실 급여화 등

- (5대 위험) 5대 건강위험요인*에 대한 사고예방·관리 투자 확대

* 조현병, 마약, 자살, 결핵, 감염병(A형 간염 등)

- 정신질환자 조기치료, 정신질환 사고에 신속 대응토록 정신건강 전문요원 확충(+580명), 응급개입팀 신설(34개팀)
-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(143→307명) 및 자살예방인력 확충(414→621명)
- 수입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 등 보강(+64대)
- 결핵환자 1:1 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요원 대폭 확충(259→668명)
- 독감 예방력 강화(3→4가),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신규 실시(44억원)
- (공공의료 인프라) 의료격차 해소 위해 전국 70개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·시행
- 중증 어린이 단기 입원 병동 최초 건립 및 뇌전증(간질) 정밀 진단 수술이 가능한 전문센터 구축

(억원)

| 구 분 | | '19년 | '20년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| | 78,732 | 89,627 | ·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(+1.1조원) |
| · 5대 위험요인 | 정신건강 | 503 | 735 | · 정신질환 응급개입팀 신설(+20억) |
| | 자살예방 | 234 | 289 | · 응급실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확충(+31.5억) |
| | 마약관련 | 176 | 241 | · 마약밀수 차단 검사장비 도입 확대(+13억원) |
| | 감염병·결핵 | 4,210 | 4,465 | · '20년 결핵 예산(464억), 감염병 관련 예산(4,001억) |
| ·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| 책임의료기관 | 1,081 | 1,213 | · 책임의료기관 인프라 보강협력 강화(+132억) |
| | 어린이 병동 | - | 25 | · 단기 어린이 입원병동(1개소) 구축(신규) |

□ 육·해상 폐기물 및 위험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

- 전국에 산재한 불법·방치폐기물 '20년 內 전량 처리(7.2→21만톤, 222억원)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대*
 - * 폐기물 처리시설(신규 33개소), 생활자원 회수센터(신규 10개소) 등
-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쓰레기 수거·처리 일자리 지원 확대
 - * 5대강 환경지킴이 167→385명, 하천·하구쓰레기 정화 446→530명(2만톤) 등
-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 대체 보급 (583→860척) 및 친환경 부표 지원 확대(50→100만개)
 -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를 확대하고, 도서지역 해양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6척 건조(권역별 1척) 지원
 - * 바다환경지킴이: (인원) 200→1,000명, (보조율) 30→50%
-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확보(59→500종) 및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지원(60→570종) 등 확대(328→544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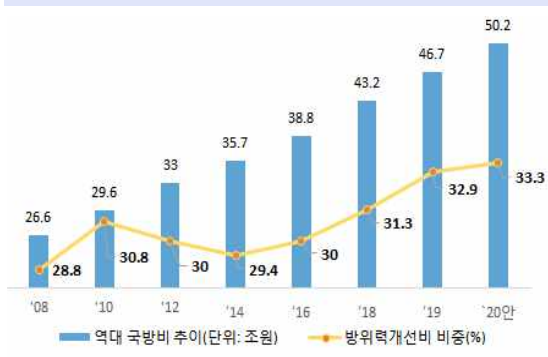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국토청정화 | 3,198 | 4,023 | · '19년 대비 25.8% 증가 |
| · 불법폐기물처리 | 59 | 222 | · '20년내 전량처리(7.2 → 21만톤) |
| ·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| 897 | 1,266 | · 매립·소각시설 등 신규 33개소 |
| ○ 청정바다 | 213 | 434 | · '19년 대비 103.8% 증가 |
| · 생분해성 어구 보급 | 52 | 77 | · 생분해성 어구 583→860척 보급 |
| · 바다환경지킴이 | 8 | 66 | · 200→1,000명 |
| ○ 화학물질 안전 | 328 | 544 | · '19년 대비 65.9% 증가 |
| ·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| 47 | 250 | · 독성정보 확인(59→500종) |
| · 화학물질 등록과정 지원 | 33 | 171 | · 화학물질 등록지원(60→570종) |

◇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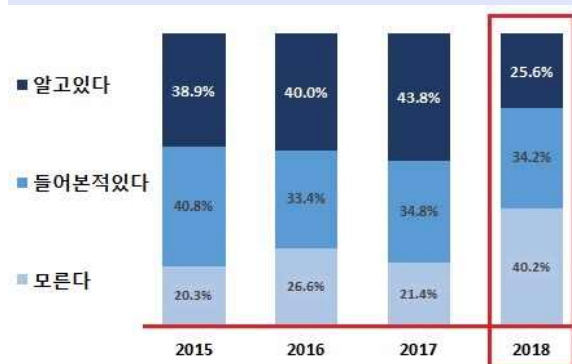
- 최근 전방위 안보 위협 및 주변국 첨단무기투자 확대 등 대외 관계 불확실성 증대
- '10년 OECD DAC 가입 이후 ODA 예산은 지속 증가해왔으나, 이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은 상황

<역대 국방비 추이>



* 출처: 기재부

<개발원조 제공 대국민 인지도 현황>



* 출처: KOICA

◇ 재정지원 방향

자주국방 역량강화

- 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
-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 육성
- 병 봉급 인상 등 병 복지 대폭 개선

평화통일 기반 구축

- 철도·도로연결 등 인프라 구축
-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조사 지원
- 대북 인도적 협력 및 사회·문화교류 지원

외교역량 강화

-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확대
-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 확대
- ODA 예산 확대

[1] 자주국방 역량강화

□ 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

-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를 46.7→50.2조원으로 증액
-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 확대*

*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: ('19년) 32.9 → ('20안) 33.3%

□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 육성

-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·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(5.1→6.2조원, +22.6%)

* 장보고III(잠수함) 건조(6,596억원), F-35A 도입(17,957억원)

- 무기체계 국산화, 핵심·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R&D 투자 확대 및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수출지원 및 경쟁력 강화 지원

* 국방 R&D 투자(3.2→3.9조원), 무기체계개조·개발(200→400억원), 국방벤처기업 육성(65→112억원)

-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 장비 보급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 확충

* 워리어플랫폼(특공·수색 등 0.4만명→6개 보병사단 등 1.9만명)

** 소대급 모의전투장비(9→21식), 포병 모의전투장비 등 11종 신규 보급

□ 장병 기본 복지 대폭 향상

- 병 봉급을 병장 기준 月 40.6 → 54.1만원*으로 33% 인상

* '22년까지 '17년 최저임금의 50%인 67.6만원까지 인상 계획

- 사병 선호 음식 제공·영양개선을 위해 日 급식단가 6% 인상(8,012→8,493원), HACCP(식품안전관리)형 취사식당 확대(168→230개소)

* 최근 인상률: ('15) 5%, ('16) 2%, ('17) 2% ('18) 5% ('19) 2%

-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**쏘 사병 보급으로 확대**(12→22만명)
- 군 복무 중 **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**(年 5→10만원) 및 **인원을 확대**(4→8만명)하고 **자기부담율 완화**(50→20%)
- 여군의 **안정적 복무여건 조성**을 위해 여성 화장실, 휴게실 등 **편의시설**(961개소) **신규 설치**(490억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년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• 핵·WMD대응 체계 | 50,691 | 62,149 | • 전략표적 타격, 한국형 미사일 방어, 압도적대응 전력 |
| • 국방 R&D 투자 | 32,285 | 38,983 | • 한국형 전투기 및 핵심기술개발 등 |
| • 스마트 정예군 육성 | 1,353 | 2,371 | • 워리어플랫폼 0.4→1.9만명 • 소대급 모의전투장비 9→21식 |
| • 병 봉급 인상 | 16,920 | 20,965 | • 병장 월급 40.6 → 54.1만원 |
| • 급식비 인상 | 13,514 | 14,325 | • 급식단가 8,012 → 8,493원/日 |
| • 여군 편의시설 | - | 490 | • 여군 화장실·휴게실 등 편의시설 961개소 |

□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

- **보상금, 6·25자녀수당, 고엽제수당, 간호수당 등을 5% 인상**
 - * 최근 인상률 : ('14) 4.0% → ('15~'17) 3.5% → ('18) 5.0% → ('19) 3.5%
 - * 6.25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3만원 인상(5→8만원, 수당 134.7만원 별도)
- **6·25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 시설·국립묘지 정비, 현충시설 건축, 감사행사 지원 확대**
 - * 의료시설 환경개선(249억원), 특별주기 국립묘지 일제정비(81억원)
 - 美 추모의 벽 등 현충시설 건립(226억원), 6.25참전자 위문, 평화음악회 등(150억원)

[2] 평화경제 기반구축 및 공공외교 · ODA 투자 확대

□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구축

- 철도 ·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, 조림(4,000→5,000ha) 등 산림협력 확대
 - * 남북경협인프라 구축: ('19년) 4,289 → ('20안) 4,890억원(+14.0%)
-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방안 구체화를 위한 한강하구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(신규 94억원)과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(10 → 12억원)
-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확산(76 → 93억원), 인도적 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 지원

□ 공공외교 · ODA 투자 확대 및 재외국민 안전 강화

-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해외 지지기반 확대 및 우호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 확대(213→479억원)
- ODA 예산을 신남방(0.6→0.8조원) 전략투자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확대(3.1→3.5조원, 11.4%)
 - 여러 부처가 협업·연계하는 융합 ODA 프로젝트 예산 발굴 확대(50개, 1,875억원 → 70개, 2,733억원)
- 재외국민의 생명·안전 보호를 위한 사고신고 · 민원 채널 다양화(메신저앱 등), 상담인력 확대(56→74명) 등 해외 영사서비스 강화

별첨 1

주요 재정혁신 사례

1

재정운용 효율성 제고

□ 회계·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

○ 특별회계·기금간 칸막이식 재원배분 해소

- 환경 분야 투자소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교특·환특 회계간 교통세 배분 비율 조정 (교특→환특 1.1조원)

*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배분 비율 조정

- (기존) 교통시설특별회계 80%, 환경개선특별회계: 15%, 기타: 5%
- (변경) 교통시설특별회계 73%, 환경개선특별회계: 25%, 기타: 2%

* 에너지특별회계·전력산업기반기금의 미세먼지 대응 책임성 강화

- 미세먼지 사업 비중: (에특회계) 26.8→36.4%, (전력기금) 27.4→31.0%

- 목적이 유사한 회계·기금간 재원을 효율적 활용

* 국민체육진흥·관광진흥개발기금 → 문화예술진흥기금 1,500억원

농지관리기금 →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,000억원

○ 기금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

* 주택도시기금 →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0조원 (+1.6조원)

전력산업기반기금 →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.5조원 (+1.8조원)

□ 내실 있는 지출구조조정 추진

○ 각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여, 절감된 재원을 신규 중점 분야에 재투자

* (예시) 전기 승용차 보조금 단가 인하(9→8백만원) → 수요 확대에 지원

신규 농지조성 사업을 구조조정(△415억원) → 재해예방 투자 확대

□ 다부처 융합예산 편성 확대

-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, 유사·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성과·체감도 제고

① ODA 융합예산 : ('19년) 0.2조원(50개) → ('20안) 0.3조원(70개 과제)

- ①관련 부처간 융합과제 사전 조율 → ②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종합 시행계획 반영 → ③ODA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발굴 및 최종조정
* (예시) 인프라 구축(EDCF) + 시스템 개선(KOICA, 각 부처) + 정책자문(KSP)

② 실험실·대학 창업 : ('19년) 31억원 → ('20안) 226억원

- 교육·과기·중기부 공동*으로 기반구축·R&D·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실험실특화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확대(5→15개)하여 대학 실험실창업 활성화
* 대상선정(교육·과기부) → 기반구축(교육부) → R&D(과기부) → 사업화(중기부)

③ 선취업·후진학 : ('19년) 0.3조원 → ('20안) 0.4조원

- 부처별 역할조정·분담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, 중앙부처-시·도교육청-학교로 이어지는 선취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
* 현장실습 : ('19) 참여승인(교육부) / 비용지원(고용부) → ('20) 교육부로 단일화
* 취업연계 : 중앙취업지원센터(20신설) - 시도센터 - 학교 취업지원관 협력체계 구축

□ 국민참여예산 1,000억원 이상으로 확대

- 안전·돌봄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국민참여예산을 전년 대비 확대하여 38개 사업, 1,114억원 편성
- 안전 환경 조성, 소외계층 복지 지원, 생활 속 편의증진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 적극 반영
- *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요인 개선 (233억원),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등 통합 주거 지원 (20억원),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(91억원) 등

1. 보건 · 복지 · 고용 분야
2. 교육 분야
3. 문화 · 체육 · 관광 분야
4. R&D 분야
5. 산업 · 중소기업 · 에너지 분야
6. SOC 분야
7. 농림 · 수산 · 식품 분야
8. 환경 분야
9. 국방 분야
10. 외교 · 통일 분야
11. 공공질서 · 안전 분야
12. 일반 · 지방행정 분야

- ◇ 사회·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원 확대
- ◇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·고령화 대비 투자 확대
- ◇ 조현병·마약·감염병 등 국민건강위험 예방·관리 강화

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강화

-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사각지대 축소
-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~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% 신규도입 (+2.7만가구)

* 현행 공제: (65~74세)30%, (75세 ↑)20만원+30%, (24세 ↓) 40만원+30%

②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 지원

- (주거)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→45%로 확대하고, 기준임대료(최고 14.3%) 및 자가수선급여(21%) 인상
- (교육)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실질경비 지원 차원에서 교육급여 중 고등학교 부교재비 62% 인상(20.9→33.9만원)
- (출산·장례비) 수급자 출산·사망시 지급하는 해산급여(60→70만원) 및 장제급여(75→80만원) 단가 인상
- (자산형성 지원)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月10만원 저축시 30만원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설 (3년간 1,440만원)

③ 장애인 및 소외아동·청소년 지원

- (장애인) '19.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 (+17시간)하고, 제도변경에 따른 서비스 감소자에 대해 추가지원
 -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인연금 인상(25 → 30만원) 확대
- (소외아동·청소년) 빈곤·요보호아동, 위기·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선도지역* 집중 지원

* 청소년 안전망(9개소), 이주배경 청소년센터(2개소), 요보호아동 사례관리(281명)

④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투자 및 고령화 대비 투자 확대

- (결혼·출산)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·국민임대(0.2→1.0만호) 및 신혼희망타운(1.5→1.9만호) 확대
 - 난임시술비, 고위험임산부 진료비 확대 등으로 임신·출산비 경감
- (보육) 어린이집 연장반(16시~) 도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2.2만명 지원, 연장보육료 신설(639억원)
- (노인 소득기반) 기초연금 인상(하위 40% 25→30만원) 및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(61→74만개)
- (노인 돌봄)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(6개)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혜자를 확대(35→45만명)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(0.2→0.4조원)

⑤ 국민건강 관리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지속 확충

- (국민건강) 조현병, 마약, 자살, 결핵, 감염병(예: A형 간염) 등 5대 건강위험요인의 예방·관리체계 확립에 투자 확대
 - (의료인프라)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*을 본격 확충하고, 중증 어린이 단기변동·뇌전증(간질) 센터 등 신설
- *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설정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기초생활보장 | 127,046 | 139,939 | ▪ 생계급여 +5,871억원, 의료급여 +6,122억원 |
| ▪ 취약계층지원 | 34,019 | 39,587 | ▪ 장애인 활동지원 +2,717억원 |
| ▪ 공적연금 | 503,116 | 561,525 | ▪ 국민연금급여지급 +39,841억원 |
| ▪ 보훈 | 55,588 | 56,761 | ▪ 보상금 +1,312억원, 보훈단체 운영 +191억원 |
| ▪ 주택 | 257,309 | 300,865 | ▪ 주택구입·전세자금(융자) 18,000억원 |
| ▪ 사회복지일반 | 12,958 | 14,359 | ▪ 사회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+780억원 |
| ▪ 아동·보육 | 81,297 | 84,473 | ▪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+1,912억원 |
| ▪ 노인 | 139,776 | 165,887 | ▪ 기초연금지급 +16,813억원 |
| ▪ 여성·가족·청소년 | 10,475 | 10,877 | ▪ 한부모자녀 +475억원, 아이돌봄지원 +194억원 |
| ▪ 고용 | 194,598 | 224,015 | ▪ 구직급여 +23,330억원 |
| ▪ 노동 | 67,138 | 76,883 | ▪ 산재보험급여 +8,012억원 |
| ▪ 고용노동일반 | 5,449 | 5,296 | ▪ 지방고용노동청 청사취득 +22억원 |
| ▪ 보건의료 | 25,930 | 27,783 | ▪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+302억원 |
| ▪ 건강보험(정부지원) | 90,187 | 101,956 | ▪ 건강보험가입자지원 +10,895억원 |
| ▪ 식약안전 | 5,086 | 5,497 | ▪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+44억원 |
| 합 계 | 1,609,972 | 1,815,703 | 12.8% 증가 |

〈참고〉 일자리 분야

- ◇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(Active Labor Market Policy)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 및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
- ◇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'한국형 고용안전망' 구축
- ◇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

□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

- 최종 수요자인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
 - 대기업 인프라 등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훈련 신설(1,800명)
 - 산업계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에 직접 참여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신설(3,000명)
- 고용위기 발생 전 지역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'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' 신설(5개 지역, 총 650억원)

* 5개 지역, 총 650억원(지역당 평균 130억원 수준)

□ '국민취업지원제도'를 도입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(0.3조원)

- 저소득층(중위소득 50% 이하) 및 청년(50~120%)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(20만명)
 - ※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개편(15만명)
-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형 고용센터(24개소) 설치,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키오스크 보급*

* 평균 대기시간이 긴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총 30개소에 설치

□ 구직자의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

- (청년) 청년추가고용장려금(신규 9만), 청년내일채움공제(신규 14만)는 핵심 애로인 원활한 취업·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
- (중장년) 경력형 일자리 확대(25→5천명), 사회공헌활동 확대(1→1.5만명)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(월 30만원, 최대 2년 지원)
- (노인) 노인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13만개 확대
- (여성)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(60→80만원), 직장어린이집 확대(94개소) 등 여성 경제활동 뒷받침
- (장애인)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확대*(+6개소),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인상**, 근로지원인 확대(3천→5천명) 등

* 15개 시·도 1개씩(서울·경기: 2개) / ** (중증남성) 50→60만원 . (중증여성) 60→80만원

□ 근로시간 단축, 산재 예방·재활 지원 등 사람 중심 근로환경 구축

- (주 52시간 정착)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인건비, 전문 컨설팅 등 지원 확대

* (일자리 함께하기) '19: 347 → '20안: 904억원 (신규채용 +0.1천명, 임금보전 +0.8천명)
(일터혁신 지원) '19: 142 → '20안: 236억원 (전년대비 +1,010건)

- (산재예방)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원 직장 복귀*를 지원하고, 공사현장 추락방지시설 지원범위 확대(20억 미만 → 50억 미만)

*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(월 30~60만원 → 월 45~80만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직접일자리 | 20,779 | 29,241 | ▪ 노인일자리 확대 61→74만명(+13만명) |
| ▪ 직업훈련 | 19,610 | 22,917 | ▪ 평생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(0.8→0.9조원) |
| ▪ 고용서비스 | 9,867 | 12,133 | ▪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(0.3조원) |
| ▪ 고용장려금 | 57,883 | 66,166 | ▪ 청년추가고용장려금(20→29만명) |
| ▪ 창업지원 | 25,097 | 23,631 | ▪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(2.4만명) |
| ▪ 실업소득 유지·지원 | 79,139 | 103,609 | ▪ 구직급여(7.2→ 9.5조) |
| 합 계 | 212,374 | 257,697 | 21.3% 증가 |

- ◇ 차별 없는 출발선 및 평생교육 기회 보장
- ◇ 선취업-후학습 지원 등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현
- ◇ 미래사회 대비 대학혁신 지원 및 혁신성장 분야 인재 양성

□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생애 전주기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

-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*하고, 유특회계 일몰기한 연장하여 만 3~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 지속 지원**

* ('19) 고3, 49만명 (전액 교부금) → ('20) 고2·3, 88만명 (국고 47.5% 지원)

**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: ('19) 3.82조원(123만명) → ('20) 3.78조원(120만명)

-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실질경비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% 인상(10.6만명, 연 20.9→33.9만원)
-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설('20년 5개), 저소득층 평생바우처 확대(5→8천), K-MOOC 강좌 확충* 등 촘촘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

*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: ('19) 누적 650개 → ('20) 820개

□ 고졸 인재의 성공 취업 및 역량 발휘를 적극 지원

- 선취업·후학습 단계별 지원 강화로 역량 있는 고졸인재 양성

* 고교취업연계장려금(2.6→3.2만명, 3→4백만원), 후진학자 국가장학금(0.9→1.1만명), 전문대 후진학자 전담과정(15 → 25개소), 고숙련 직업훈련 P-Tech(30 → 40개소) 등

-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유인 제고로 고졸 취업경로 활성화

*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(직업계고 고3 2.7만명, 실습기간 중 월 60만원), 실습참여기업 실습비용 지원 확대(0.15→2만개 기업, 월평균 50만원) 등

- 중앙-시·도-학교로 이어지는 고졸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고졸 인력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연계 기능 강화

* 중앙취업지원센터('20신규) - 시·도센터 - 학교 취업지원관 협력체계 구축

□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혁신 및 인재 양성 지원

- 대학(전문)혁신지원사업을 확대하고,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신규 적용(총 사업비의 30% 수준)
 - 지역성장을 견인할 대학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신설(시범 3개소, 1,080억원)
- * 대학혁신지원 : ('19) 5,688 → ('20) 8,035억원, +2,347억원 (+41%)
 전문대학혁신지원: ('19) 2,908 → ('20) 3,908억원, +1,000억원 (+34%)
-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형(6.4천명, 신설)을 중심으로 BK21사업 확대·개편(총 17→19천명)하고 대학원 혁신지원비 신설(529억원)
-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현대화 등 교육·연구 혁신을 위한 지원 및 안전투자 확대(6,628→8,173억원, +1,545억원)

□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('19.8.1일)에 따른 대학 강사제도 안착 지원

- 방학중 임금·퇴직금 지원* 및 인문사회 연구지원 확대 (1,780→3,589과제),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기회 신규 제공(49억원)
- * 방학중임금: ('19) 288(2주) → ('20) 577억원(4주), 퇴직금 신규지원(232억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▪ 유아·초중등교육 | 593,832 | 602,958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교무상교육(신규 6,594억원) ▪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(38,153→37,846억원) |
| ▪ 고등교육 | 102,576 | 109,82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학혁신지원(5,688→8,035억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자율협약형·역량강화형(5,688→6,955억원) -지역혁신형(1,080억원, 신규) ▪ BK21 플러스 사업(2,967→3,840억원) ▪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확충(535→1,217억원) ▪ 학문후속세대 지원(363→645억원) |
| ▪ 평생·직업교육 | 8,771 | 10,677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문대학 혁신지원(2,908→3,908억원) ▪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(780→1,107억원) |
| 합 계 (교부금 제외시) | 706,490 (154,002) | 724,829 (169,862) | 26% 증가 (10.3% 증가) |

- ◇ 5G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
- ◇ 한류를 활용한 관광 붐 조성 및 관광 인프라 강화
- ◇ '생활체험형' 문화재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

□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

- 가상·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 선도투자로 신시장 창출 지원

*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(189→498억원)

- 체험존 조성을 통해 일반국민의 실감형콘텐츠 향유기회 확대

* 국공립문화시설 체험존 조성(50개소, 300억원)

□ 예술인 생활안정과 취·창업 지원 대폭 확대

- 생활자금 소액대출 등 용자를 확대하고, 창작준비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

* 생활안정자금 융자(85→190억원 1,170→2,370명), 창작준비금(166→362억원 5,500→12,000명)

□ 한류를 활용한 관광 붐 조성 및 관광기업 지원 등 인프라 강화

- K팝 공연장 확충, K팝 콘서트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외래 관광객 2천만명 달성

* 체조경기장 공연시설 개선(171억원, 신규), K-컬처 페스티벌(61억원, 신규)

- 관광기업 생애주기별 성장지원, 금융지원 확대 등 관광·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활력 제고

* 관광벤처 혁신성장 지원(99억원, 신규), 관광기업육성펀드(130→300억원)

- 국제관광도시(광역 1개)·지역관광거점도시(기초 4개) 집중 육성,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등 지역관광 활성화

* 관광거점도시 육성(2→159억원), 관광빅데이터 구축(신규 50억원)

□ '생활 체험형' 문화재 활성화 및 세계유산(K-Heritage) 지원 강화

- 유·무형 문화유산을 실감형콘텐츠로 제작하여 체험기회 제공

* 한양도성 타임머신(100억원, 신규)

- 궁궐·향교·종갓집 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대폭 확충

*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(128→165억원),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(122→182억원)

- 서원 등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·활용 지원 강화

* 문화유산 방문캠페인(49억원, 신규),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(77억원, 신규)

□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스포츠산업 성장기반 강화

- 스포츠클럽 확대, 스포츠클럽 디비전(승강제) 리그 신설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

* 스포츠클럽 육성(97→171개소, 155→224억원), 스포츠클럽 디비전(1→4종목, 38→108억원)

- 자금 융자 확대, 창업·성장 단계별 통합 지원 등을 통한 스포츠 산업 경쟁력 제고

* 스포츠산업 융자(312→662억원),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(52억원, 신규)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문화예술 | 31,069 | 34,895 | ·국공립문화시설 체험존 조성(50개소, 300억원) ·창작준비금(166→362억원, 5,500→12,000명) |
| 관 광 | 14,140 | 13,839 | ·체조경기장 공연시설 개선(171억원, 신규) ·관광 거점도시 육성(2→159억원) |
| 체 육 | 14,647 | 16,878 | ·스포츠클럽 육성(97→171개소, 155→224억원) ·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(52억원, 신규) |
| 문 화 재 | 9,008 | 10,636 | ·한양도성 타임머신(100억원, 신규) ·문화유산 글로컬 활용(122→182억원) |
| 합 계 | 72,495 | 79,694 | 9.9% 증가 |

- ◇ 소재·부품·장비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
- ◇ Data.Network(5G).AI. 및 3대 핵심사업 집중투자로 혁신성장 확산
- ◇ 기초연구, 중소기업 R&D 확대 및 R&D 기술의 사업화 등

□ 소재·부품·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강화

-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와 既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

*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(총 15,723억원, '20년 1,581억원)

* Tech-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(총 2,637억원, '20년 130억원)

- 국내 기술 신뢰도 향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확충 등 기반구축

* 공공나노팩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(723억원), 소재부품지원센터(15개) 기반구축(990억원)

□ D.N.A.(Data, Network(5G), AI)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과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위해 3대 핵심사업 투자확대

- 데이터·AI 융·복합 기술개발·실증과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확대

*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(신규 139억원) / AI 대학원: ('19) 3 → ('19 추경) 5 → ('20안) 8개

-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선도기술 확보 및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

*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(신규 891억원)

-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국가 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바이오헬스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
* (데이터)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(신규 150억원)

(R&D)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(신규 938억원), 치매극복 연구개발(신규 59억원)

- 미래차 조기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

*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(총 3,856억원, '20년 390억원)

□ **혁신역량** 확충을 위한 기초 및 혁신연구, 中企 R&D 등 투자확대

- 자율적·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, 기초·원천 및 산업분야 혁신적 도전형 R&D 프로젝트 지원

* 개인기초 연구(과기부) : 9,796 → 12,408억원 / * 집단연구지원 : 2,210 → 2,789억원

*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 : 35억원(신규) /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 : 118억원(신규)

- 중소기업 혁신 지원, 기업규모 및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R&D 지원 등 중소기업 전용 R&D 투자확대

*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: 1,055 → 2,651억원 / * 창업성장 기술개발 : 3,733 → 4,790억원

□ R&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용 촉진

- 지역별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대학의 실험실에서 보유한 고급기술 기반 창업 촉진

* 실험실창업지원 : 110 → 242억원 / * 연구개발 특구육성 : 734 → 935억원

- 미세먼지 원인규명 고도화 및 저감기술 투자확대 및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R&D 투자 강화

* 동북아-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45억원(신규) / 국민참여 R&SD 선도사업 45억원(신규)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|
| ▪ 과학기술 부문 | 63,732 | 72,078 | · 개인기초연구(과기부)(9,796→12,408) ·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(2,525→3,630) |
| ▪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| 44,867 | 57,630 | · 소재부품기술개발(2,360→6,027) ·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(640→1,834) |
| ▪ 교육 부문 | 20,392 | 23,035 | ·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(2,177→3,374) · BK21 플러스사업(1,484→1,920) |
| ▪ 사회복지·보건·환경 | 9,391 | 10,431 | ·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(255, 신규) |
| ▪ SOC 부문 | 7,973 | 8,783 | · 스마트건설기술개발(225, 신규) · 스마트자동차 항만 상용화 술개발(30→220) |
| ▪ 기타 부문 | 58,975 | 68,916 | · 보라매(6,642→10,403) |
| 합 계 | 205,328 | 240,874 | 17.3% 증가 |

- ◇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
- ◇ 모태펀드 역대 최대규모 출자, 스케일업 지원 등 제2벤처붐 확산
- ◇ 포용적 자금지원 확충·新기술 적용 등 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

- (수출 지원) 무역금융 보장 및 통상현안대응 강화, 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
 -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, 해외플랜트 수주 등 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4.2조원 무역금융 공급(수은·무보 출자·출연 350→5,700억원)
 - 수출바우처(3,200→3,500개社), 해외전시회·사절단 지원(5,800→6,500개社) 확대 등 마케팅지원 강화
 -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통상정보센터(신규) 설치 및 WTO 분쟁 관련 법률자문 등 대폭 확대(49→163억원)
- (제조업 경쟁력) 스마트공장·산단 지원, 제조 소기업·주력 제조업 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유도
 - '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'20년 0.4조원 지원(4,000 → 5,500개, 누적 1.8만개)하여 제조혁신 촉진
 -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센터(2개소)·분석 플랫폼(1개소) 신규 구축
 - 스마트산단(2→4개소) 조성 등 산업단지 혁신 유도
 - 제조 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혁신바우처(컨설팅·판로 등 통합지원, 2,000개社) 신설, 뿌리산업 특화단지 환경개선 확대(9→11개 단지)
 - e-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 구축(+100억원), 조선업 인력양성(+88억원), LNG병커링선 건조(+30억원) 등 자동차·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
 - 지방·외국인 등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지원 확대(2,353→3,182억원)
- (창업·벤처) 역대 최대규모 창업·벤처 재정지원(3.7→5.5조원)과, 스케일업에 중점을 둔 집중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

- 모태펀드에 1조원을 출자하여 총 2.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, 혁신분야 창업기업 융자공급도 +0.5조원 확대
- 성장단계기업(창업 3~7년) 사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(350→750개社)하고, 이들 중 혁신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한 사업화지원 신설(300개社)
- 민·관협력으로 기술창업기업의 R&D와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TIPS*(250→300개), Post-TIPS(20→40개) 대폭 확대

* TIPS(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: R&D·사업화 연계의 기술 창업 지원

□ (소상공인) 자영업·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,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 투자

- 지역신보 특례보증 5조원 확대(20.5→25.5조), 소상공인 융자 0.3조원 확대(2.0→2.3조)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(2.0→2.4조원)
- 이익공유형 프로젝트*(50개社), 비즈니스모델 개발(10개),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(1,000개 점포) 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(신규 146억원)

* 성공 CEO가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이 성공시, 이익일부를 CEO와 공유

- 구도심의 쇠퇴상권을 개조하는 상권르네상스(+6개소, 개소당 최대 120억원), 지역·온누리 상품권 1조원 확대* 등 골목상권 활성화(0.3→0.4조원)

* 지역사랑상품권(2.3→3.0조원), 온누리상품권(2.0→2.5조원) 발행 확대

□ (에너지)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·융자 지속 확대(+0.9조원) 및 장기사용 열수송관 융자지원(+100억원) 등 에너지안전 투자 강화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무역 및 투자유치 | 6,705 | 10,866 | · 무역보험기금출연 (350→3,700) |
| ○ 창업 및 벤처 | 32,369 | 45,803 | ·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(2,400→10,000) |
| ○ 중소기업·소상공인 육성 | 65,331 | 83,929 | · 신성장기반자금(융자) (8,800→13,300) |
| ○ 에너지 및 자원개발 | 34,194 | 38,933 | · 신재생에너지보급·금융지원 (5,240→6,140) |
| ○ 산업혁신지원 | 38,049 | 46,642 | · 산업단지환경조성 (3,401→4,130) |
| ○ 지식재산일반 | 2,848 | 3,193 | · IP-R&D 전략지원(R&D) (212→319) |
| ○ 산업금융지원 | 2,000 | 3,330 | · 중소기업은행 출자 (2,000→3,330) |
| ○ 산업·중소기업 일반 | 6,146 | 6,571 | |
| 합 계 | 187,641 | 239,266 | 27.5% 증가 |

- ◇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반 시설을 고도화·지능화하는 한편, 안전투자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
- ◇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착수하고,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을 위한 투자확대

□ 신기술(AI, 5G 등)을 접목하여 도로·철도 등 기반시설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화(스마트 인프라)

- 국도 지능화, 감응신호시스템 등 안전하고 막힘없는 첨단 도로체계 구축

* 국도ITS구축 : ('19) 408 → ('20안) 1,086억원, 감응신호 : ('19) 68 → ('20안) 168억원

- 스마트시티 시범도시(세종·부산) 본격화,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으로 경쟁을 통한 확산 지원

*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(265→712억원), 스마트시티 챌린지(93→269억원)

□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투자 확대

-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노후화 비율이 높은 철도 시설 안전성 제고에 재원을 집중 투입

* 도로유지보수 : ('19) 5,627 → ('20안) 6,262억원(+635)

*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: ('19) 6,263 → ('20안) 10,013억원(+3,752)

- 방파제, 준설 등 항만 안전 강화 및 태풍피해 복구 투자 확대

* 방파제, 준설 : ('19) 3,956 → ('20안) 5,045억원(+1,089)

* 태풍피해복구 : ('19) 334 → ('20안) 381억원(+46)

- 그간 지자체 등 관리주체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철도, 노후 역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하여 안전투자를 조속히 마무리

* 도시철도 노후시설 : ('20안) 566억원(+152), 노후역사 : ('20안) 282억원(신규)

□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('19.1월 발표) 착수 소요를 전액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가속화(24개, 0.3조원)

○ 사업 추진여건에 맞추어 설계·터키·착공소요를 반영

* (도로) 제2 경춘국도(200억원), 울산 외곽순환 도로(51억원) 등
 (철도) 남부 내륙철도(150억원), 동해선 전철화(200억원) 등

□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, 출퇴근 여건 개선 및 전국을 아우르는 간선망 구축 지원

○ 대도시권 순환도로·혼잡도로, 수도권 광역철도 등 지속 투자로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국민 삶의 질 제고

* 혼잡도로(17개 사업) : ('19) 868 → ('20안) 1,228억원(+360)

*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-A) : ('19) 800 → ('20안) 1,350억원(+550)

○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, 철도망 적기 구축 지원

* 세종~안성 : ('20안) 1,602억원(+1,592), 포항~영덕 939억원(+336)

* 울산~포항 복선 : ('20안) 849억원(+599), 도담~영천 : ('20안) 4,980억원(+589)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도로 | 58,743 | 66,683 | · 고속도로 건설(1.4 → 1.7조) |
| ○ 철도, 도시철도 | 55,163 | 66,792 | · 일반철도 건설(2.2 → 2.9조) |
| ○ 해운·항만 | 17,172 | 18,658 | · 항만개발 및 관리(1.3 → 1.6조) |
| ○ 수자원 | 17,311 | 12,753 | · 하천관리(1.1 → 0.5조, 지방이양△0.6조) |
| ○ 지역 및 도시 | 20,205 | 23,790 | · 도시재생사업(0.5 → 0.7조) 등 |
| ○ 물류, 항공, 산단 | 28,938 | 34,380 | · 건설정책및기술지원(0.1 → 0.2조) |
| 합 계 | 197,531 | 223,055 | 12.9% 증가 |

- ◇ 쌀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하는 등 농어업 구조의 혁신 지원
- ◇ 청년농 지원, 스마트 농어업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
- ◇ 농어업 관측 고도화, 채소가격안정제 등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
- ◇ 농업생산기반 정비, 어촌뉴딜 등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

□ 농어업 구조 혁신 추진

- 직불금의 쌀 농가·대농 편중을 해결하고, 농지보전·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추진(2.2조원)
- 근해어선 감척 확대(19→69척) 등으로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

* 어선 감척: ('19) 333 → ('20안) 942억원(+609, +183.0%)

□ 스마트농어업, 수출경쟁력 강화 등 농어업의 신성장동력화

- 스마트팜혁신밸리(4개소), 스마트축산ICT단지(3→8개소), 스마트 양식클러스터(1→3개소) 등 스마트농어업의 혁신거점 조성

* 스마트팜혁신밸리: ('19) 686 → ('20안) 817억원 (+131, +19.1%)

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: ('19) 79 → ('20안) 225억원 (+146, +185.7%)

- 임대형 스마트팜(혁신밸리 외 2개소), 수직형 스마트팜(8개소) 등 보급 확산 지원

- ICT기자재의 국가표준화 보급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

- 창업 생태계 조성, 모태펀드 출자 확대(270→420억원), 국가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원 등 농수산식품업의 경쟁력 제고

*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: ('19) 95 → ('20안) 140억원 (+45, +47.6%)

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: ('19) 214 → ('20안) 387억원 (+173, +81.1%)

- 청년농의 정착·성장 단계별 맞춤형·패키지 지원*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청년농 육성

* (예비)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(500→800명), 농고·농대 실습장 설치(7→15개소), (초기정착) 비축농지임대(1,720→2,500ha), 영농정착지원금 지원(3,200→4,800명) 등

□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도모 및 유통 선진화

- 빅데이터·드론 활용, 스마트농업 정보플랫폼 구축(신규 47억원) 등 농어업관측 고도화

* 농업관측: ('19) 85 → ('20안) 169억원 (+83, +97.9%)

- 채소가격안정제 도입 비중 확대(평년 생산량 10→12%)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사전적·자율적 수급 관리기능 강화

*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: ('19) 161 → ('20안) 203억원 (+42, +26.1%)

- 지역단위 로컬푸드,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방식 선진화

*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: ('19) 45 → ('20안) 51억원 (+6, +12.2%)
직거래등 신유통망구축(신규): ('20안) 40억원

□ 농어촌 지역 영농·생활 여건 개선

- 농어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어촌뉴딜 지원 개소수를 70→170개소로 확대

* 일반농산어촌개발: ('19) 9,256 → ('20안) 5,359억원 (△3,897, △42.1%)
어촌뉴딜 300: ('19) 1,729 → ('20안) 3,981억원 (+2,253, +130.3%)

-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,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 인프라에 1.9조원 투자(+0.1조원)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▪ 농업·농촌 | 149,143 | 155,924 | ▪ 농업직불금 22,000(+7,878), 맞춤형농지지원 6,460(+1,811) |
| ▪ 수산·어촌 | 22,448 | 23,687 | ▪ 어촌뉴딜 3,981(+2,253), 연근해어선감척 942(+609) |
| ▪ 임업·산촌 | 21,743 | 22,687 | ▪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1,890(+1,488) |
| ▪ 식품업 | 6,970 | 7,367 | ▪ 식품위식종합자금 1,570(+270),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387(+173) |
| 합 계 | 200,303 | 209,665 | 4.7% 증가 |

- ◇ 재난 수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핵심배출원 저감조치 가속화
- ◇ 적수사태 예방을 위해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
- ◇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환경산업 육성 기반 강화
- ◇ 화학물질·폐기물 등 위해요인 해소 및 국립공원 여가인프라 확충

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

- 산업·수송·생활 분야 핵심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가속화
 - * (산업)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(182→4,000개소)
 - (수송) 노후경유차 조기폐차(15→30만대) DPF 부착(1.5→8만대)
 - (생활)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(3→35만대)
-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설비 설치(200→530억원),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(2,272→6,000대) 등 국민 건강보호 투자 확대
- 한·중 협력, 국제공동연구 등 국외유입 미세먼지 대응 강화
- ⇒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목표* 1년 앞당겨('22→'21년) 달성
- * '22년까지 '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.4만톤의 35.8%(11.6만톤) 저감

②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

- 적수(赤水)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수질·수량 관리시스템 구축
 -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고, 수질 이상시 경보 발령 및 오염수 배출을 통해 신속 대응
- ⇒ 수도사고 취약지역, ICT 적용가능성 등 운용여건이 우수한 특광역시·거점도시 우선 추진(19개, '20년 국비 0.4조원)
-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적조 다발지역(28개)에 IoT 센서 기반 수질감시시스템 도입, 실시간 감시·신속 대응체계 구축

③ 친환경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

- 친환경차 구매보조금,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1조원 이상 투자(0.7→1.1조원)

| 전기차 | | | 수소차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구분 | '19년 | '20년 | 구분 | '19년 | '20년 |
| 승용차 | 4.2만대 | 6.5만대 | 승용차 | 4,000대 | 10,100대 |
| 화물차 | 1,000대 | 6,000대 | 버스 | 35대 | 180대 |
| 급속충전기 | 1,200기 | 1,500기 | 충전소 | 30개소 | 40개소 |

- 우수 환경 중소기업의 「실증·사업화→수출」 등 전주기 지원 확대

* 미래환경산업 펀드 130→280억원,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49→284억원,
환경산업 수출지원 144→185억원(본타당성 조사 신규 42억원)

④ 화학물질·폐기물 등 유해물질 관리 강화 및 여가인프라 확충

- 화학물질규제 강화에 대응, 이행기반 마련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

* 화학물질 독성정보 확보 확대(59→500종),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지원(60→570종)

- 불법·방치폐기물 '20년 내 전량처리(21만톤, 222억원) 및 환경 오염 우려지역 쓰레기 수거·처리 지원 확대

- 국립공원 내에 가족단위 등의 체류형 여가시설(예: 보급형 Cabin), 및 안전 인프라 확충(예: 앰블런스 드론)

(억원)

| 구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▪ 물환경 | 39,463 | 40,060 | ▪ 스마트 지방상수도(신규 0.38조원) |
| ▪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| 6,708 | 8,177 | ▪ 국토청정화(0.3→0.4조원) |
| ▪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| 13,808 | 26,371 | ▪ 대기개선 추진대책(0.26→0.97조원), 친환경차(0.7→1.1조원) |
| ▪ 자연환경 | 6,379 | 6,360 | ▪ 국립공원 탐방·안전인프라(0.3→0.33조원) |
| ▪ 환경일반 | 4,739 | 4,638 | |
| ▪ 해양환경 | 2,875 | 2,653 | ▪ 해양폐기물 정화(0.01→0.02조원) |
| 합계 | 73,972 | 88,259 | 19.3% 증가 |

9

국방 분야

◇ 핵·WMD 대응 전력 강화 및 국방 R&D 투자 확대
 ◇ 장병의 기본복지 개선 및 과학화훈련을 통한 전투력 제고

-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안보태세 유지
 - 국방개혁2.0 관련 핵심전력 증강 및 국방R&D 투자 확대
 - 핵·WMD 대응 등 핵심무기체계 전력 보강에 집중 투자
 - * 장보고III(잠수함) 건조(6,596억원 +3,304억원), F-35A 도입(17,957억원 +2,396억원)
 - 무기체계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 등 국방R&D 투자 확대
 - * 국방 R&D 투자: ('19) 3.2 → ('20안) 3.9조원(+20.7%)
- 튼튼한 국방·안보태세의 기초가 되는 병 봉급인상 등 병 복지 개선을 통한 장병 복무여건 보장
 - 병사 사기 제고를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40.6→54.1만원* 으로 33% 인상
 - * 병장기준 ('19) 40.6 → ('20) 54.1 →('22) 67.6만원으로 인상 계획
 - 급식 질 제고를 위해 일 급식 단가를 8,012→8,493원으로 6%* 인상하고, HACCP형 취사식당을 168→230개소로 확대
 - 군 복무 중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장병 자기계발비 1인당 지원한도를 5→10만원, 지원인원을 4→ 8만명으로 확대
-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군 육성
 - 개인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장비 보급 확대*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** 강화
 - * 위리어플랫폼: ('19) 특공수색 등 0.4만명 → ('20안) 6개 보병사단 등 1.9만명
 - ** 소대급 모의전투장비: ('19) 9 → ('20안) 21식, 포병 모의전투장비 11종 신규 보급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|
| ▪ 병력운영 | 187,758 | 198,817 | · 병(병장 기준) 봉급 인상(40.6 → 54.1만원, +33%) · 급식단가인상(8,012 → 8,493원, +6%) |
| ▪ 전력유지 | 125,479 | 135,795 | · 위리어 플랫폼 0.4 → 1.9만명 · 소대급 모의전투장비 9 → 21식 |
| ▪ 방위력 개선 | 153,733 | 166,915 | · 핵·WMD 대응(50,691 → 62,149억원, +22.6%) · 국방 R&D 투자(32,285 → 38,983억원, +20.7%) |
| 합 계 | 466,971 | 501,527 | 7.4% 증가 |

- ◇ 공공외교 및 ODA에 전략적 투자 확대로 외교역량 강화
- ◇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및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확산

□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여건을 고려, 우호적인 외교환경 조성 및 재외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

- 우리 대외정책 및 역사·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제 사회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지원 확대(213 → 479억원)
- 해외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영사콜센터 상담사 증원(56→74명) 및 민원 접수 채널 다양화(신규 40억원) 등 추진

□ 유·무상 ODA 대폭 확대로 개도국과 동반 경제협력 기반 조성

- ODA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1.4% 수준, 신남방* 및 신북방** 지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원국에 ODA 집중 확대

* 신남방 ODA : ('19년) 6,145 → ('20안) 8,012억원(+1,867억원, +30.4%)

** 신북방 ODA : ('19년) 1,405 → ('20안) 2,118억원(+713억원, +50.7%)

□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'평화경제' 기반을 구축하고,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

- 철도·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을 통해 경제공동체 구현 기반 마련
- 남북 접경지역 공동이용을 통한 번영의 장으로 전환 추진

* 한강하구 공동이용(6 → 122억원),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(10 → 12억원) 등

-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및 국제사회 지지 기반 구축

* 신한반도체제 구상 구체화(2.5억원), 국제적 지지 확보(16 → 24억원) 등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외교·통상 부문 | 37,026 | 40,595 | · 재외국민보호(119→191) |
| ▪ 통일 부문 | 13,621 | 14,734 | · 남북협력기금 사업비(11,036→12,176) |
| 합 계 | 50,648 | 55,329 | 9.2% 증가 |

- ◇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치안역량 강화
- ◇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대형·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

□ 형사공공변호인 신규 도입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 확충 및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

- (형사공공변호인 도입) 수사·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보호 위해 구속된 피의자·피고인 국선변호를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
 - *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: ('20안) 18억원
 - * 국선변호인 : ('19) 600 → ('20안) 625억원
- (시설확충)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(+3개), 스마일센터(+2개) 아동보호시설(+2개) 등 범죄피해자 지원시설 확충
 - *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(스마일센터) : ('19) 196 → ('20안) 231억원
- (인력 확충) '상근조정 전담변호사' 및 진술조력인 등 확충을 통해 조정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 지원
 - * 상근조정전담변호사제도 : ('19) 5 → ('20안) 14억원

□ 교정행정의 중점을 수용 관리에서 인권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

- (인권보호)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과밀 수용 해소 및 교정시설 환경 개선 추진<19년 9개(+293명)→20년 11개(+1,119명)>
 - * (평균 수용률) '18년 114.5% → '20년(예) 109.2 → '23년(예) 102.0(법무부)
 - * 교정시설 수용동 리모델링: ('19) 74 → ('20안) 166억원
- (사회복지 지원) 교정기관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(6,000→6,500명) 확대 및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
 - * 교도작업(작업장려금) : ('19) 216 → ('20안) 229억원
 - * 갱생보호대상자 취업지원 : ('19) 75 → ('20안) 82억원

□ 난민 신청자 생계비·통역지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등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강화

- * 외국인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: ('19)74 → ('20안) 99억원

□ 112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긴급신고 대응역량 강화 및 의경 단계적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 위한 투자 확대

○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112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112상황요원 전문성 향상 등 체계적 관리

- * 112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: ('20안) 90억원 (신규)
- * 지방청 112종합상담실 통제관제 상황판 교체 : ('20안) 30억원 (신규)
- * 112종합 상황실 체계적 관리 : ('20안) 6억원 (신규)

○ 의경 단계적 감축('18~'23)에 따른 치안공백 예방을 위해 해안 경계부대 과학화 및 경찰관서 방호 체계 보완 등 재투자

- * 의경운영 및 관리 : ('19) 1,219 → ('20안) 1,018억원
- * 경찰관서 출입통제 시설 : ('19) 5 → ('20안) 48억원
- * 해안경계부대 과학화 : ('19) 139 → ('20안) 257억원

□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대형·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지원

○ 풍수해, 가뭄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발생 위험지역 지속 정비(462→540개소) 및 우수저류시설 확충(24→28개소)

- * 재해위험지역 정비(보조) : ('19) 3,959 → ('20안) 4,342억원

○ 대형·복합재난에 대한 전국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방인력(56→59천명) 및 헬기 확충,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지원

- * 충청·강원권, 호남권 중형헬기 보강 → 전국 4대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완료
- * 재난안전통신망 전환 : ('19) 230 → ('20안) 935억원 (+705)

○ 해상 수색·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 해경파출소 잠수요원 (764명) 신규 양성 및 해경 함정·대형헬기 등 장비 보강

- * 함정건조 : ('19) 1,215 → ('20안) 1,654억원 (+439)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법원및헌재 | 20,652 | 21,713 | · 국선변호료 지원(625), |
| ▪ 법무및검찰 | 40,615 | 42,241 | · 교정시설(3,151), 범피기금(960) |
| ▪ 경찰 | 113,558 | 119,910 | · 의경대체지원(640) |
| ▪ 해경 | 13,845 | 15,252 | · 함정건조(1,654), 항공기도입(315) |
| ▪ 재난관리 | 12,647 | 10,352 | · 재해위험지역정비(4,342),우수저류시설(695) |
| 합 계 | 201,317 | 209,468 | 4.0% 증가 |

〈참고〉 안전 분야

- ◇ 미세먼지 저감, 노후 도로·철도 개량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
- ◇ 기후 리스크, 대형·복합재난 대비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강화

□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투자 2.9배로 획기적 확대

- (산업)사업장 방지시설, 굴뚝 TMS 설치, (수송)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, (생활)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 배출원별 저감 투자

- *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: 182→4,000개소
- *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3배 이상 : 1,636→5,599억원
- * 조기폐차 후 LPG차 신차 구입 지원 10배 : 950→1만대
- *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10배 이상 : 3→35만대

- 한·중 미세먼지 저감 공조 확대 및 국제공동연구 고도화(6→40억원)

□ 30년 이상 노후화된 기반 시설 등 안전 SOC 투자 확충

- 도로 유지·보수(1.6→1.7조원), 철도 노후시설 개량(0.7→1.1조원) 등 노후 교통 SOC에 대한 안전 보강 대폭 확대
- 댐 안전성 강화(699→887억원), 하천 유지·보수(1,451→1,760억원) 등 노후 방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 적극 지원

□ 기후 리스크에 대비, 재난·안전 인프라 투자 지속

- 국지성 집중호우,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, 붕괴 사고에 대비, 재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(462→540개소)
- 재해시, 실손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전국 실시 및 가입율이 저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지원 2배 인상(25→50%)
-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신농업 대응체계 구축 연구(신규 235억원), 예보·관측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(75→125억원) 등 중점 지원

□ **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** (교통안전 · 산재방지 · 자살예방) **지속 추진**

-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, 회전교차로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 대폭 확충(861→982개소)
-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30%를 차지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'일체형 작업발판' 설치 지원 확대(40→69백개소)
- 자살예방을 위해 응급실 내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 확충(143→307명)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확충(414→621명)

□ **대형 · 복합재난에 대비, 전국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원**

- 소방 국가직화 추진에 따른 소방 현장인력 확충, 소방헬기 보강으로 전국 4대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
- ^(18.10)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대비, '대용량포 방사시스템' 국내 최초 도입
- 제주 연안 VTS 신규 구축, 제주권 대형구조헬기 도입, 파출소 초동잠수요원 양성 · 배치 등 해상 수색 · 구조역량 확충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▪ 미세먼지 저감 | 3,867 | 11,360 | ·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(15→30만대) |
| ▪ 도로 · 철도 안전 | 22,579 | 28,141 | · 도로 1.7조원, 철도 1.1조원 |
| ▪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| 21,779 | 25,230 | · 교통안전(20,698), 산재방지(4,235), 자살예방(297) |
| ▪ 재해위험지역 등 정비 | 4,512 | 5,038 | · 침수, 붕괴 등 위험지역정비(4,342), 우수저류시설 설치(695) |
| ▪ 소방안전교부세 | 5,375 | 8,288 | · 소방 현장인력 확충 지원(56→59천명) |
| 합 계 | 15.9조원 | 17.2조원 | 8.3% 증가 |

- ◇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지원
 ◇ 과거사 정리·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 뒷받침

□ 일자리 창출·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

- 마을기업 육성·판로개척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확대·소상공인 매출 활성화

* 마을기업 육성: ('19) 78억원(210개) → ('20안) 97억원(405개)

**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: ('19예비비) 2.3조 대상, 534억원 → ('20안) 3조 대상, 743억원

□ 과거사 정리·기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국가 구현

- 5.18 등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·기념시설 건립 및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·조사 확대

* 5.18, 2.28 등 10주기 행사 지원(+44억원) / 3.8(대전), 3.15의거(창원) 기념관 건립(신규)

** (유해봉환) 도쿄·나가사키(신규), 사할린·타라와(확대), (유해조사) 해남도(신규)

-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(광주·제주)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 치유 지원

□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해결,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해 정부·사회혁신 모델 개발 및 확산 추진

* 국민공모형 사회문제해결(신규): 18.4억원 / 공공데이터개방: ('19)335 → ('20안) 363억원

□ 교통불편지역·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차질 없는 지원

* 국회의원 선거관리 ('19) 17억 → ('20안) 2,266억

(억원)

| 구 분 | '19 | '20안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▪ 지방행정·재정지원 (교부세 제외시) | 532,631 (8,013) | 531,714 (8,661) | · 지방교부세(52.5→52.3조원) ·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(신규 743억) |
| ▪ 재정·금융 | 183,262 | 205,764 | · 국고채 이자상환(11.9→13.6조원) |
| ▪ 일반행정·입법및선거 | 35,417 | 40,523 | · 과거사지원(397→464억원) · 국회의원선거관리(17→2,266억원) |
| 합 계 | 765,597 | 804,860 | 5.1% 증가 |

별첨 3

'20년에 달라지는 모습

1. 혁신성장 가속화

| 핵심과제 | 주요 프로그램 | '19년 | '20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 | 주요 소재·부품 품목 자립화 | 26개 품목(추경) | 66개 품목 |
| | 중소기업 전용 R&D | - | 600개 과제 |
| D.N.A. + BIG 3 |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발 | 17개 | 54개 |
| | 고성능컴퓨팅 지원 | 200개社 | 800개社 |
| | 5G기반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| - | 50개소 |
| | 데이터 중심병원 | - | 5개소 |
| | 친환경차 보급 (승용차 기준) | (전기) 4.2만대 (수소) 0.4만대 | (전기) 6.5만대 (수소) 1.0만대 |
| 혁신인재 | BK 21 혁신성장인재 양성 | - | 6,400명 |
| | 평생내일배움카드 (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) | 1,300명 | 2,100명 |
| |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| 1,647명 | 4,127명 |
| 제2벤처붐 확산 | 모태펀드 출자금액 | 0.24조원 | 1조원 |
| | 창업도약패키지(사업화) | 350개社 | 750개社 |
| | 예비유니콘발굴 육성 | - | 40개社 |
| | 혁신성장분야 창업패키지 | - | 300개社 |
| | TIPS 창업팀 | 250개팀 | 300개팀 |
| | 실험실특화창업선도대학 | 5개소 | 15개소 |

2. 경제활력 제고

| 핵심과제 | 주요 프로그램 | '19년 | '20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수출 · 투자 · 관광 | 무역금융 공급 확대 규모 | 1조원 | 4.2조원 |
| |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 | 3,200개社 | 3,500개社 |
| | 정책자금 공급 규모 (산은, 기은) | 6조원 | 14.5조원 |
| | 관광사업 창업 지원 | 80개, 2천만원 | 150개, 4천만원 |
| 제조업 경쟁력 제고 | 스마트공장 보급 | 4,000개社 | 5,500개社 |
| | 스마트산단 지정(누적) | 2개소 | 4개소 |
| | 제조 소기업 바우처 지원 | - | 2,000개社 |
| | 온라인 제조플랫폼 서비스 | 40개社 | 80개社 |
| 지역 경제 | 도시재생 | 221개소 | 329개소 |
| | 어촌 뉴딜 | 70개소 | 170개소 |
| | 문화·체육·돌봄시설 복합화 지원 | - | 280개 수준 |
| | 지역혁신플랫폼 | - | 시범 3개소 |
| 농어업· 농어촌 |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| 500명 (농대생) | 800명 (농대생+비농대생) |
|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| 3,200명 | 4,800명 |
| | 임대용 농지매입 | 1,720ha | 2,500ha |

2. 경제활력 제고

| 핵심과제 | 주요 프로그램 | '19년 | '20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사회서비스 일자리 | 보육·노인 등 돌봄 일자리 | 17.5만명 | 21.9만명 |
| | 청년·신중년·노인 등 특화 일자리 | 4.3만명 | 6.4만명 |
| |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| 9.9만명 | 11.5만명 |
| | 기타 환경·안전·문화 등 | 6.4만명 | 7.9만명 |
| 청년 일자리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| 20만명 | 29만명 |
| | 청년내일채움공제 | 25만명 | 35만명 |
| 신중년 재취업 지원 |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| 2,500명 | 5,000명 |
| |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| 1만명 | 1.5만명 |
| 출산·육아기 지원 |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| 월 최대 60만원 | 월 최대 80만원 |
| | 출산전후휴가급여 | 월 175~180만원 | 월 180~200만원 |
| 장애인 일자리 |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| 13개소 | 19개소 |
| | 장년장애인인턴제 | - | 200명 |
| | 장애인고용장려금 | 인당 30~60만원 | 인당 30~80만원 |
| 고용 안전망 | 국민취업지원제도 | (I유형) - (II유형*)22.7만명 * 취업성공패키지 | 20만명 15만명 |
| | 실업급여 | 평균임금 50% 90~240일 | 평균임금 60% 120~270일 |

3.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

| 핵심과제 | 주요 프로그램 | '19년 | '20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저소득층 | 생계급여(4인기준) | 월 최대 138.4만원 | 월 최대 142.5만원 |
| | 의료급여 선정기준(4인) | 월 184.5만원 | 월 190.0만원 |
| | 주거급여 선정기준(4인) | 월 203.0만원 (중위소득 44%) | 월 207.6만원 (중위소득 45%) |
| | 에너지바우처(난방) | 10.2만원 | 10.7만원 |
| 아동 | 아동수당 | 243만명 | 263만명 |
| | 온종일 돌봄 | 37만명 | 40만명 |
| | 한부모가족양육비 | 11.3만명 | 13.9만명 |
| |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| 4,900명 | 7,800명 |
| 노인 | 기초연금 인상 | 156만명 (소득 하위 20%) | 325만명 (소득 하위 40%) |
| | 맞춤형 돌봄서비스 | 35만명 | 45만명 |
| |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| - | 30만원 |
| | 고령자 임대주택 | 0.9만호 | 1만호 |
| 장애인 | 장애인활동지원 | 8.1만명 | 9.0만명 |
| |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돌봄 | 4,000명 | 7,000명 |
| | 장애인 연금 인상 | 13.1만명 (기초수급자) | 15.3만명 (기초+차상위) |

4. 국민 생활편의 · 안전 증진

| 핵심과제 | 주요 프로그램 | '19년 | '20안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스마트 인프라 | 국도 ITS 구축 | +320Km | +1,197Km |
| | 국도터널원격제어시스템 | - | 24개 권역 |
| | 감응신호시스템 | +97개 교차로 | +330개 교차로 |
| |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(통합 플랫폼) | 15개 지자체 | 30개 지자체 |
| 안전 인프라 | 재해위험 지역정비 | 462개소 | 540개소 |
| | 중앙 119특수구조대 권역별 헬기 보강 | 6대 (대형 4, 중형2) | 8대 (+중형 2, '22년 배치) |
| 미세먼지 저감 |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| 15만대 | 30만대 |
| |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| 1.5만대 | 8만대 |
| |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| 182개소 | 4,000개소 |
| | 가정용 저녹스 보급 | 3만대 20만원 | 35만대 저소득층 50만원 |
| |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| 950대 | 1만대 |
| |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| 2,272대 | 6,000대 |
| | 도시숲 조성 | 차단숲 60ha 바람길숲 11개소 | 차단숲 90ha 바람길숲 19개소 |

5. 튼튼한 국방·외교

| 핵심과제 | 주요 프로그램 | '19년 | '20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자주국방 역량강화 | 병 봉급 (병장/월) | 405,700원 | 540,900원 |
| | 1일 급식 단가 (재료비) | 8,012원 | 8,493원 |
| | 자기계발비 | 5만원 | 10만원 |
| | 위리어 플랫폼 (보급대상) | 4천명 | 19천명 |
| | 국방 R&D 투자 | 3.2조원 | 3.9조원 |
| 남북 교류협력 | 산림협력 (시범 조림) | 4,000ha | 5,000ha |
| | 한강하구 공동조사 | - | 수로·생태 등 (3개 분야) |
| | 이산가족교류 | 대면상봉 6회 화상상봉 3회 | 대면상봉 8회 화상상봉 10회 |
| 외교역량 강화 | ODA 융합예산 | 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 | 17개 부처 70개 프로그램 |